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25호 2021년 5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용남 편집인: 오지주



<왼쪽부터>박정원 편집장, 유은주 간사, 문현호 총무국장, 연영재 사무총장, 신용남 회장, 이희만 편집고문, 이지희 간사, 정주명 간사.

미주동창회 제30차 평의원회의

공/지 6월25~27일 LA Hotel Oxford palace

2021년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및 회장 이.취임식에 미주 각지부의 평의원님 및 동문 여러분을 LA로 초대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의 위세가 급속히 꺾이면서 6월까지 미국내 대부분 일상생활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맞추어 남가주의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단, 임원진, 동문들은 평의원회의의 안전을 고려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만족스런 투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30차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많이 참석하시어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의 단합과 도약의 또다른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의원회의의 일정을 통해 코로나로 단했던 심신에 휴식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주동창회 제30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 27일(일)
장소: Hotel Oxford palace /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213) 389-8000

*평의원회의의 장소가 현지사정으로 Hotel Oxford palace로 변경되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호텔예약안내

평의원회의의 참석 동문들을 위해 6월11일까지 예약하는 분들은 King과 Double을 일괄적으로 1박 \$100 + tax의 특별할인 가격을 적용 받습니다. 호텔방 수요가 제한되어 있으니, 신속한 예약 신청을 바랍니다.

Email : snuausa30@gmail.com (성명, 지부명, 단과대, 입학년도, 전화번호, Email 주소, Check in/out Date 기재 요망)

■ 문의 714-260-5483 강호석(차기 사무총장)
818-321-2214 이호진(차기 총무국장)
213-210-4429 김자성(차기 홍보국장)

■ 공항 교통편 안내

공항 도착 후, 한인 Call Taxi, Yellow Cap 또는 Uber, Lyft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인 Call Taxi: 패밀리 213-435-3436 / 김씨 213-383-0002) / 모던 213-300-1119)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약 16 Mile (약25분)입니다.

COVID-19관계로 직접 공항까지 영접을 못하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관련 안내

현재의 LAC DPH 방역수칙에 의하면, 참석자의 백신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함께 이뤄낸 성과

15대 임기 ‘센츄리 파운데이션’ 기금 두배로 ... 1,700명 회원 추가

팬데믹으로 대외활동 제약 불구, 신문제작·회원관리 집중 ‘내실’ 다져

/ 15대 회기 지난2년을 돌아보며 /

매달 이어지는 회보제작과 재정, 회원관리 등 씬없이 달려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다. 길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길었던,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것을 이룰수도 있을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 짧은 시간이였다.

첫 1년은 한달에 한번 자유롭게 만나 식사도 함께하며 거리낌 없이 회의를 이어나갔으며 또다른 1년은 마스크를 쓴채로 서로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난 1년과는 다른 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분명 야외활동은 줄어들었지만 그 어느때 보다 더 우리는 뚝뚝 뚫고, 오히려 이 기회로 동창회 전체의 이슈에 대해 집중할 수 있었다. 마지막 2달을 남기고 15대 임원들은 그동안 우리가 힘써 이루어 놓았던 일들을 정리하고 아쉬웠던 점들 또한 나누며 2년간의 일들을 함께 돌아보았다.

<편집자 주>

1.어떤 계기로 15대회기 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지?

<연영재 사무총장>

회장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동문회가 좀 더 학교의 이름과 명예에 맞게 동문간 친목과 모임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참여하게 되었다. 2년 전 카네기홀 음악회 때 뉴저지 호텔에서 공연장까지 동문들과 함께 3대의 대형버스에 나눠타는데 10살이나 많은 선배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이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그 계기로 동문회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시영 편집위원>

CT 지부 회장을 맡으며 신용남 회장님 부부와 친분을 갖게 되었고 비록 내게 임원으로 할 일을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또한 현재 동창회의 웹사이트 관리를 맡기에 이르렀다.

<문현호 총무국장>

선배님의 출판 기념회에 참여 하였는데 그 곳에서 회장님을 뵈게되어 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신회장님께서 동창회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늘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회장님의 리더십을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했다.

<한경진 재무국장>

2년 전 신용남 회장님의 제안이 있었지만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 생각했고 처음엔 고사했다.

<2면에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미주동창회 유지, 성장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참여, 후원 요청!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아래의 주소로 회비 납부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신응남 회장 연영재 사무총장 이희만 편집고문 박정원 편집장 문현호 총무국장 한경진 재무국장 이지희 간사 정주명 간사 유시영 편집위원

<1면서 계속>
하지만 회장님이 회장단에 젊은 동문 참여와 앞으로 동창회에 대한 큰 비전에 대해 듣고 도움을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신응남 회장>
모교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미주동창회 일을 통해 봉사할 기회를 보던 겸 2017년 때가 되었다는 판단하에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다.

2. 처음 가졌던 비전과 생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유는?

<연영재 사무총장>
팬데믹으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버뮤다 크루즈는 물론 지부회의 참석 등 모든 것이 취소되는 상황이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신응남 회장>
내 임기중에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SNU CLUB을 창설하기위한 꿈을 꿔왔다. 이를 위해 하버드, 예일 클럽을 리서치 해보기도 했다. 결국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처럼 큰 꿈을 꿔기때문에 현재의 Fundrasing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더 큰 꿈은 SNU로고가 박힌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26개 지부를 투어하는 것이었다. Covid로 인해 이를 수는 없었지만 내 임기가 끝나더라도 동창회에서 꼭 이루어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

<유시영 편집위원>
웹사이트 호스팅 회사의 software는 전체 commercial sites의 약 반수가량 사용되는 full blown program으로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으나 약 2달간의 기본 지식의 습득과 live website에 실전을 거듭해 이제는 필요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경진 재무국장>
개인적으로 저는 동창회와 젊은 동문의 가고 역할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가졌었고, 동창회 행사에 젊은 동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하지만 작년 8월 이후 샌디에고에 있는 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

<문현호 총무국장>
개인적으로는 보스턴을 오가며 학업 중이였기 때문에 2년동안 잘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 임원님들께 죄송했다. 하지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배려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동창회는 비록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왔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회장님의 리더십으로 인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계획했던 비전을 어느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3. 재무, 총무, 인터넷 관리 등 본인이 맡은 직

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방향있다면?

<유시영 편집위원>
동창회 회비는 거의 전부가 신문 구독료로 사용되니 구독을 장려하여야 회원이 늘수있는 상황에 website를 홍보하는것과 상충되는 어려움이 있어 먼 앞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printed paper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 조심스러운 점도 있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 하는지는 평의원의회의 미래 전략의 주어진 과제라 생각한다.



임원 및 편집회의 모습.

<문현호 총무국장>
각지부의 관심과 참여가 임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동창회의 원동력이 되는것 같다. 각 지부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경진 재무국장>
15대 회기에서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고 특별히 각 주의 신입회원 명부가 잘 업데이트가 되고 상당한 수의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회장단에서는 SNS에서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서 젊은 동문이 더 많은 참여가 나왔으면 좋겠다.

<박정원 편집장>
신문사의 편집부에서 일을 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력으로 내가 해 낼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과연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었다. 기사 작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던지라 많은 부담을 느꼈지만 고문님과 회장님의 도움으로 나 또한 많이 성장했음을 느낀다. 회보 편집에 있어서 2년간 많은 부분이 자리잡았다고 자부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있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부 활동은 줄었지만 대신 많은 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글을 보내주셨다. 다음회기에도 동문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걸쳐 부담없이 또는, 기분좋은 부담을 가지고 글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이는 16대 회기를 제작하는 편집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4. Pandemic으로 인해 가장 특별한 15대를 지내왔다. Covid상황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어떻게 이겨내 왔는지?



<연영재 사무총장>
작년 8월 평의원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당시 많은 분들의 팬데믹을 이유로 반대 때문에 개최 여부가 불투명 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설득과 조율이 있었다. 하지만 위생문제 등 철저한 준비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유은주 간사>
15대때 저희 남편<유시영 편집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커네티컷에서 많은 행사를 지원해 드리고자 했었다. 예일대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회장님과 함께 진행하고자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멈출수 밖에 없었다. 신뢰장님의 회기는 끝이 나지만 뉴욕과 커네티컷 간의 다양한 행사를 기대한다.

<문현호 총무국장>
코비드 가운데 15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고 극복해 내갈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가기 시작했다. 매달 열리는 임원회의와 편집회의를 통해 수준높은 동창회보 발간과 회보 발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금 회보의 모습을 갖추었고 온라인을 통한 평의원 회의, 지부장회의, 브레인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힘든 시기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뢰장님의 리더십이었다. 흔들릴때마다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셨고 임원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셨을 뿐

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주셨기 때문에 “가족” 이라는 마음을 품도록 해주셨다.

<한경진 재무국장>
작년 3월 처음 팬데믹이 터졌을때 많이 당황을 했고 동문회에도 많은 차질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기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다. 앞으로는 new normal 시대에 맞춰 우리 동창회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

제 15대 미주동창회 임기 주요 10대 사업 및 성과	
1	2019년 6월 22일, 제28차 뉴욕 평의원 회의 개최 및 축하 '카네기 음악 공연' 성황리 개최 (600 석 전석 매진/ 음대 62 강미자 소프라노 고בל 공연/남성 4명, 음대 02 & 10 젊은 후배 동문의 카네기 데뷔 기회 제공/ 한국인의 문화성을 널리 알림)
2	2019년 10월14일 모교 홈커밍데이 참석시 '글로벌 리더십 BNT 세미나' 성공 개최 미주 내 4명의 동문 교수, 박사 및 석학 초청 모교 재학생참석 (모교 법대 강당 - 200여명 참석)
3	미주동창회 주소 업데이트로 동문 회원수 1,700명 추가 확보 지난 18개월간 동창회 참여치 않고 있는 동문 발굴, 이는 전체의 30% 증가 (추가 및 회보 발송/ 인수시 : 5,700 명 - 현재 : 7,411 명)
4	'센추리 화운데이션' 300만불 모금위한, 종신이사 등록 캠페인 활동으로 총 60명 참여 성과 이룩 현재 추적을 이루고 있는 50 & 60대 학번 동문의 자연 감소로, 날로 어려워가는 재정자립위한 기금 - 인수시 종신이사 76 명에서(지난 20년 동안)현재 135명으로 증가.
5	'센추리 화운데이션' 기금 35만불 추가 현재 72만불이 안전한 스타에(Fidelity total index fund) 투자됨. 연 5-7만불 이자 수익 예상, 동창회 연 예산 25% 이상 Cover 예상하며, 활발한 활동기대.
6	2020년 8월, 제29차 평의원의회의 온&오프라인으로(장소: 더블쥬리 호텔) 개최 (팬데믹 중 미주동창회 최초로 개최)
7	2021년 3월27일 "인류문명의 미래전망" 주제로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동&서부 지부 공동 주관, 100여명 참여(6명의 과학 및 인문학 분야, 젊은 전문 강사로 초청)
8	모교 재학생 미주 인턴기회 제공 / 모교발전 기금 - 장학금으로 모교에 2만불 지원
9	팬데믹 중에도 지속적인 동창회 회보 발행을 통해 동문들의 단합, 소통 격려를 추구했으며, 신속한 정보 전달 및 다양성, 참신성을 높임
10	15대 임기 회보 기념집 출판 6월 예정 - All Color, 500페이지

5. 제16대 회기를 준비중인 차기임원들과 동문들께 전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연영재 사무총장>
학교의 명예를 생각하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모교를 위해 생각하고 토의하는 동창회가 되길 바란다.

<유시영 편집위원>
Knowledge transfer를 아직하지 못했으나 실제 일을 할 때 얼마든지 협조할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Website 관리에는 어떻게 기사나 뉴스를 받으으며 어떤 기사를 실어야할지 결정하는 문제를 미리 잘 숙고해야 한다. 이 담당은 보상을 받을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다.

<문현호 총무국장>
16대 임원으로 참여해주시고 동창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리다. 16대 임원 모두 한가족이 되어 차기 회

장님의 리더십에 따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16대의 임기를 훌륭하게 해내시리라 믿는다.

<한경진 재무국장>
주변과 늘 소통하며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 귀를 여는 차기 임원단이 된다면 성공적인 임기를 마치시리라 믿는다.

<신응남 회장>
김광호 동문의 조사에 이끈 문장을 쓴 바 있다. "인생이란 단 한번 뿐인 무대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배역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부는 조국의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곳 서울대의 일부이다. 인생의 무대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16대 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무대에서 내려올때 박수를 받고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란다.

“알립니다”

이번 15대 동창회(회장: 신응남)에서는 임기중 발간된 회보를 묶어 오는 6월 기념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필진 및 동문들 중 원하시는 분은 동창회로 연락바랍니다.

*소정의 우송료가 있습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미주동창회 차차기 회장 추천서

“추진력과 성실함을 갖춘 후보”

이치현 (약대 77)
하틀랜드 지부 회장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창회에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COVID-19 pandemic으로 동창회 활동이 힘들고 어느정도 침체되어 있지만 이또한 지나가면 더더욱 활발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보기에는 매사에 추진력이 있으며 성실하고 동문 개개인의 사정을 잘 고려합니다. 이 후보는 동문부부(부인 가정대 식품영양학과 70)로써 두분 다 종신이사입니다.

미주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이상강 동문을 여러 지역동창회의 동문들과 교류도 많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헌신적으로 봉사할 후보”

김병연 (공대 68)
전 남가주 동창회장

달려와 배운 재정적 후원과 마음의 선물은 지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높이 살 점은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 입니다.

■문무를 겸비한 전문인
그는 의학을 전공한 의사이면서 각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박학다식한 학자 입니다. 건강을 상담할 때는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조용히 설득하는가 하면, 철학을 논하는 토론자로서도 놀라운 학문적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소시적부터 배워온 한시와 더 나아가 중국의 명산과 명승고적을 그린 당시를 외우며 시 해설과 함께 큰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을 주시해보면 학생시절부터 뒤야 온 당수를 시작으로 검술, 무술, 태극권의 고단자로서 자신을 무장하면서 남다른 지도력과 성실성, 그리고 책임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의료인
이상강 동문은 그동안 Heartland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통하여 서울대인의 위상을 높인 동문이기도 합니다. 오크라호마 지역의 종합병원 과장을 맡아 일하면서 무의촌 진료 봉사 등 적극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오며 자신의 철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틈틈이 참여했던 봉사 활동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상처입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생명의 존귀함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40여년 간의 의료 활동에서 5년 전에 은퇴하고, 남은 열정을 동창회를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동문간의 친목 도모와 동창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동문부부(부인은 가정대)가 종신이사로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동창회에 대한 열정과 덕목 본인이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재임시, 중요한 행사마다 수 천마일 먼곳에서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강연내용



전재성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코로나 시대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국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미중 관계와 한국-

I. 코로나 사태와 미중 관계의 변화

o 코로나 사태는 미국의 리더십, 선진국의 국력, 강대국 간 세력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작동함.

- 국제보건협력 및 보건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 지구화에 대처해야 하는 지구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 많은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임.
-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스페인 등 기존의 선진국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내부 정치, 보건체제의 약점을 노출하면서 국제협력보다 상호비난 책임 넘기기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함.
- 기존의 미중 전략 경쟁을 변화시킬 만큼 코로나가 충분히 나쁜 상황은 아님. 여전히 국가단위의 대처, 국제기구를 우회하는 국가 이익 중심의 대처 및 경쟁의 상황이 진행됨.

o 코로나 사태는 미중 간 상대적 손실을 둘러싼 국력 경쟁, 체제모델 경쟁, 패권적 리더십 경쟁의 양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음.

- 국력 경쟁은 결과적으로 경제력 회복에 대한 것으로 미국이 훨씬 취약한 상황.
-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구공급사슬 재편 및 탈지구화, 디지털화 등의 거시 구조 변화의 영향력을 생각해보아야 함.

o 모델 경쟁 차원에서 미중은 첨예한 차이를 보임.

-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중앙집권 권위주의의 체제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
- 효율적인 우한 봉쇄와 경제활동 재개. 그러나 지방정부들의 중앙 눈치보기 등 초기 우한 사태는 단일 사례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위주의의 문제.
- 반면 미국 중앙정부는 초기 대응에서 매우 무력. 미국 내 국제정치전문가들의 서베이에 의하면 미국의 대처가 비효율적이었다는 견해가 80%를 넘어섬.
- 그러나 미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각 사례에 적절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

o 미중 간 체제모델 경쟁이 비단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가시적 부문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모델 경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됨.

-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따른 충격과 같은 체제경쟁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
- 코로나 사태에서 미중 체제경쟁의 승

패는 결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중국은 조업 재개 및 일상 복귀의 단계로 경제회복 단계를 보임. 한국, 독일 등도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 2020년 미국 경제성장율은 -3.5%, 중국은 2.3%를 기록.

o 코로나 사태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미중 간 아시아 아키텍처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 미중 경쟁은 지정학 경쟁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정치, 사회문화, 소프트 파워 경쟁이 더욱 심화된 양상. 동시에 승기를 잡기위한 경제, 기술, 에너지 경쟁에서 새로운 분쟁 요인이 심화될 가능성.
- 그러나 미중 경쟁 전선은 바이든 정부 들어 경제, 기술을 넘어 인권, 정치/사회체제, 에너지 부문으로 점차 이행할 가능성 증가.
- 이러한 대립구도는 이미 진행됨. 일대일로 대 인도태평양의 대립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

o 미중 패권 리더십 경쟁은 명확한 승패를 가능하기 어려운 가운데 서로 리더십의 단점만 부각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은 미국의 대응 실패로 인한 반사이익, 지구적 보건리더십 등을 추구. 그러나 중국의 세계보건 리더십의 성격에 대한 비판도 점차 증가. 무차별 공공재제(public bads)와 선별배제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불완전한 패권의 후보라는 비판으로 볼 수 있음.
- 정작 향후 발생하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미국, 중국 등 개별 국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됨.

o 따라서 단기적, 현실적 상황 변화가 별무한 가운데 장기적 인식변화가 발생하여 현실 변화를 이끌 가능성은 존재.

- 이번 사태로 세계화로 인한 위험 요인, 세계화 관리의 필요성, 국제협력의 거버넌스 필요성, 미국의 유일 패권이 아닌 집단적 리더십, 그리고 중국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모델의 문제점 등이 밝혀짐.
- 따라서 향후 코로나 사태와 같은 보건 위기의 재발, 혹은 세계화 문제로 인한 경제위기, 난민위기, 환경위기가 닥친다면 코로나 사태의 실패를 교훈으로 보다 강력한 국제협력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존재.

성 존재.
- 향후 중국은 국제기구에 대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겠지만 이번을 기회로 강대국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지구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환기되었다고 볼 수 있음.

II. 바이든 정부 시대 미중 관계와 동맹전략

o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골자: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자료는 현재까지 국무부 연설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America's Place in the World, FEBRUARY 04, 2021과 Interim National Security Report(March 3).
- 전체 독트린: 미국의 이익은 미국의 글로벌 위상에 의해 확보됨.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책과 같이 가야 함. 중산층의 이익을 위한 외교정책
- 정책 기조: 외교적 수단의 극대화. 힘(군사력)의 우위에 의한 외교협상, 미국의 가치 중심 외교, 민주주의 세계연대 강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미국과 동맹국의 강화에 의한 미국 경제이익 증진.
- 주요 이슈: 러시아, 중국, 버마, 예멘, 난민, 성소수자, 인종평등
- 중국 이슈: 경제와 기술, 인권, 지구 거버넌스에서 강압적 행동에 대한 대처, 동시에 협력의 필요성 강조. 동맹의 역할 분담에 대한 힌트
- 국방 이슈: GPR에 의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o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및 아시아 전략의 핵심 내용

- 인도, 태평양 지역을 전략 공간으로 삼아 중국의 팽창을 막는 것이 핵심 목표: 중국이 기존의 규범을 저해하는 세력이며 아시아와 아시아를 넘는 영향권을 설정하여 지역 패권을 추구하여 미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가정.
- 미국 경제의 부활, 미국 중산층의 경제적 부흥을 통해 미국의 대외 개입과 패권 전략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재건하여 이념과 가치 면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

o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

-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대중 억지 목적으로 재편하는 것: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건설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러한 군사력 증가를 바탕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현상 변경, 미국의 아시아 접근을 거부하는 군사력

건설 및 도련선 전략을 추진한다고 인식
-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A2AD)에 맞설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제시함.
- 미국은 2018년에 시작된 다영역작전(MDO), 혹은 전영역지휘통제(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수행을 위한 전략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10년을 목표로 1차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있음. 2021년 다영역작전 2개 소대 배치 등의 계획. 인도태평양 여지구상에 향후 10년 간 약 24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

- 202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과 새로운 대중 군사경제작전을 위한 동맹국들 간 역할 분담 논의에 들어갈 것임.
-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주의를 강화할 것임. 경제 부분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금융질서의 확립, 중국의 기술 절도 행위 등에 대한 견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술 동맹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 견제를 추구할 것임.

o 바이든 정부의 동맹 전략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임.

-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양자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주력할 것임.
- 유럽 나토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결속을 강화하고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나토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대중 견제를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영역 확대, 유럽-인태 연결 전략을 추진할 것임.
- 인태지역에서 양자동맹, 소다자동맹, 중다자동맹(쿼드와 같은), 대다자안보협력 등을 동시에 추진할 것임.
-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동맹을 중심으로 양자동맹을 강화하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한미일 협력, 미일호 협력 등을 강화하는 소다자 노력을 추구함.
- 미국의 인태전략의 새로운 기축은 쿼드와 같은 중다자 협력임.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쿼드와 같은 중다자 기제를 적극 계승하여 발전시킬 것으로 논의하고 있음. 2월에 개최된 쿼드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회의를 보다 정기화하고 다양한 층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등 새로운 멤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군사부문에서도 네트워크화된 연



전영기(정치 80)

/ 관약춘추 /

호랑이 발톱과 개

한비자는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원리를 호랑이와 개에 비유해 설파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이 피선출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이 병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은 발톱과 이빨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가 이빨과 발톱을 개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다면 호랑이가 오히려 개에게 복종하게 된다." 군주가 신하의 눈치를 보고, 국민이 피선출자에게 복종하는 일이 비밀비재한 세상이다. 이 기막힌 역전의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호랑이가 의당 자기 몸의 일부인 발톱과 이빨을 시나브로 상대방한테

내주었기 때문이다. 한비자에 따르면 군주는 한편으로 형벌로, 다른 한편으로 은덕으로 신하를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송나라의 한 교활하고 잔인한 신하는 임금에게 "사람에게 은덕을 베푸는 일은 모두가 좋아하므로 임금께서 행사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 백성이 미워하는 바이므로 신이 행하겠나이다" 라는 요설로 형벌권을 얻어냈다. 교활하며 잔인한 신하는 자기 멋대로 아랫사람의 형벌을 처리했으나 국내의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 하여 감히 명을 거역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상태가 몇 년 지속되니 정권은 저절로 임금에게서

신하의 손으로 넘어갔다. 한비자의 결론은 이렇하다. "임금이 형벌과 은덕의 권한을 잃어 신하에게 대신 행사하게 하고도 국가가 멸망하지 않은 예는 아직까지 없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실이다. 백성이 유순한 것 같아도 잘못된 통치가 꼭 대가까지 차오르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권력을 바꿔 버리고 만다는 얘기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선출자에 대한 유권자의 발톱은 제도화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 행위다. 선거에서 교체 가능성의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국민은

피선출자한테 형벌권을 넘겨 버리고, 그저 유순하고 자애로운 은덕만 베풀려고 한다. 그런 국민은 개한테 복종하는 호랑이 신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디지털 정보가 권력 집단한테 집중되고 코로나 재앙으로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지닌 발톱과 이빨이 퇴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민간과 시장이 위축되고 공공이 구원자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풍조 때문이다. 국민은 야성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기우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없이 보고 있다.

합동체제, 상호운용성,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축으로 한 기술 동맹 등을 추진.
- 미국은 인태지역 전방에서 다자적인 안보협력 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현재는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연대 등의 기제를 우선 활용할 것으로 보임.

o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대중 견제 전략의 이슈영역 또한 매우 다양함.

-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군사력에 기초한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대중 억지와 현상유지, 세력균형에 기초한 군사전략을 추진할 것임.
- 무역 부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협상 1단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중국의 국내산업 지원 및 구조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무역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동시에 WTO 강화와 같은 다자주의 무역규범을 증진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의 도움을 받을 것임.
- 금융 부문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환율정책, 디지털 위안화 정책 등을 견제하기 위해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한편, 투

자 질서에서 중국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 기술 부문에서 대중 견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파이프 아이즈 국가들과의 5G 협력을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클린 네트워크를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이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임.
- 미국의 인권 정책 또한 민주주의 증진의 새로운 차원이며, 중국이 그간 보여온 대만에 대한 강압전략, 홍콩, 신장 등에 대한 탄압정책에 대한 지구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또한 다자주의의 지구 제도들에 대한 참여를 확장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지구 거버넌스에서 대중 견제를 추구할 것임.

III. 한국의 고민과 한미관계의 미래

o 한국의 미중 관계 전략의 원칙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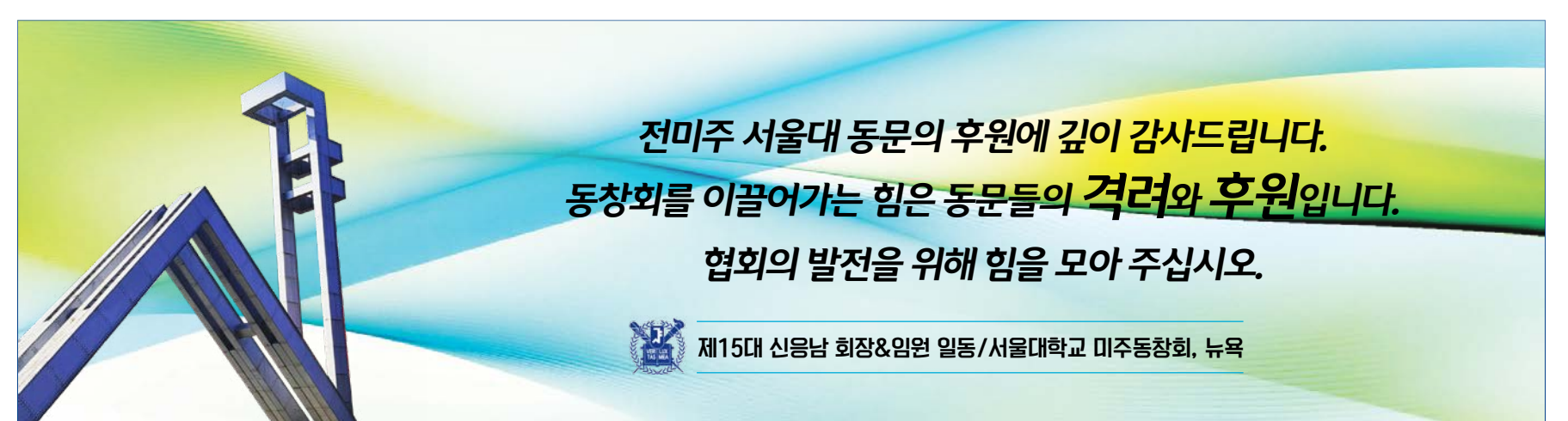
- 미중 간 배타적인 전략적 선택과 같은 논의의 시기는 지나가는 상황. 한국이 어떠한 지역질서를 원하는지, 그 속에서 미중과 어떠한 협력, 경쟁 관계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
- 미국의 아시아 동맹체제 전체, 동맹국들 간

의 역할 분담 구도 전체를 예상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와 내용을 생각하고 있을 필요.
- 미국의 인태전략은 직접적인 대중 군사경제, 경제부문에서 새로운 공급망 및 FTA 네트워크 형성, 인권/가치 동맹, 기술동맹, 지구 다자주의의 제도 연합 등 다양한 층위를 가짐.
- 한국이 대중 견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차원별로 어떠한 입장을 가지면서 미국과 협력 공간을 찾는지가 중요.
- 각 부문별 미중 협력/경쟁 구도가 매우 상의할 것이므로 이슈영역별 전문성과 규범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 역량 네트워크가 필요. 특히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한미 간 영역별 대화 채널 다양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이 지구/지역 다자주의를 통한 한미 협력 공간을 찾는 노력이 가능한 경로: 그러나 탄소중립, CPTPP 중국과 별개의 버마와 지역질서를 원하는지, 그 속에서 미중과 어떠한 협력, 경쟁 관계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
- 미국의 아시아 동맹체제 전체, 동맹국들 간

수 있는 가능성.
- 향후 6월 G7+3, 세계민주주의 연대 등에서 한국의 다자주의 전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과제.

o 바이든 정부는 8년을 예상한 첫 해이고 한국 정부는 사실상 마지막 해이므로 복핵 및 평화프로세스를 둘러싼 속도와 스케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양국 모두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전체 로드맵 및 율 해의 진도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
-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우선, 대중 전략 및 한미동맹에서 유보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인식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의 북핵/한반도 평화 문제와 지역, 세계질서를 둘러싼 한미 간 전략 협력의 균형 찾기가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할 수 있음.
-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한국의 입장을 가지고 바이든 정부와 균형 있는 의제설정이 필요하고, 북핵 문제는 비핵산의 국제적 측면도 가지므로 미중 협력 축진의 활용 의제로서도 고안해 볼 필요가 있음.



종신이사추대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허지영 (문리 66)

허지영 동문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했으며, 조지아주 서울대 동창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Chu Family Foundation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플래티넘

부부 골드이사



박영철 (농대 64)

박영철 동문은 여러 제약 연구소에서 30년 이상 일하면서 많은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였고 그 중 몇개의 약은 현재 에도 암, 혈우병, 심장병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정선주 (간호 68)

정선주 동문은 72년 간호학과 졸업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 남자아이들 4명을 데리고 용감히 Minnesota로 왔다.



허선행 (의대 58)

1964년에 의과 대학 졸업 인턴 수료 및 군 복무 후 1969년에 도미했다. 인턴, 외과 훈련 후 뉴욕시에 있는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Radiation Oncology training을 1974년에 마치면서 바로 Board certified 되면서 1년 더 근무했다.

에서 조교수로 약 1년간(1975-1976) 일하다가 뉴욕으로 돌아와 Mt. Sinai Hospital, Beth Israel Hospital, The Brooklyn Hospital에서 주로 전립선 암 치료와 수술을 해 오다 2008년에 은퇴했다.

명이다. 뉴욕 한국일보의 일반 상식과 의학 상식란에 글을 써 왔고(1980-1990) 시계탑 편집장, KAMA Medical Professional Journal의 Founding editor 그리고 미주 한인 의사 첫 일백주년 역사 책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종신이사로 Join하게 되었다.

각 지역 서울대동창회 행사예고

COVID 19으로 움추렸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봄을 맞이 하듯이 미주동창회에도 단합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2021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 일시 : 2021년 5월 22 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9시
■장소 : S-Village 야외 행사장 / 5151 Romaine St. LA. CA 90029
■문의 : 김용진 총무 405-564-4008

시카고 동창회 춘계 골프 대회

- 일시 : 2021년 5월22일 (토) 11:30AM - 도착/등록
■장소 : Highland Woods Golf Course 2775 Ela Road, Hoffman Estates, IL 60192, Il 60192
■문의 : 김윤하 847-707-8502

2021 필라델피아 동창회 총회

- 일시 : 2021년 6월 5일 토요일
■장소 : Calvary Vision Church 550 Township Line Rd, Blue Bell, PA 19422
■문의 : 지홍민 회장 215-512-9510

홍 건 동문 개인 작품전

<의대 64>



홍 건(의대 64)동문이 시카고 문화회관에서 4월16일~4월27일 개인 작품전을 열었다. 홍 동문은 졸업후 시카고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일하다 2013년에 은퇴,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에서 5년간 자원봉사자로 사역을 했다.

한홍택 동문 '은퇴계획' 세미나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원장>

SNU 포럼 개최

시애틀 SNU Forum 4월 세미나가 10일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열렸다. 작년말 '전기차와 투자기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한홍택 박사(공대 60·사진)가 본인이 직접 마련하는 은퇴계획 (Retirement Planning Do-It-Yourself)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경우에는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갈 기회가 있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원장으로 초빙되어, 부러부러 은퇴하고 갔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혼이 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한 박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앞만 내다보며 달리다가 어느덧 은퇴를 하게 되면 갑자기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까지는 생활을 위해 수입이고 투자고 모두 직장에서 대신 해결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것을 혼자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이정화 동문 '슈만 200주년 음반' 발매



글로벌 뮤직 어워즈(Global Music Awards) 금메달 (Gold Medal)을 수상자 이정화(음대 88·사진 왼쪽) 동문이 지난 3월 19일 새 음반을 출시했다.



은 이번 앨범은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 곡들이다. 클라라 슈만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에 녹음한 음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연되다가 올 3월에 출시하게 되었다. 이 음반은 19세기 당시 몇 안되었던 여성 작곡가로서 그리고 특히 여성 연주가로서의 클라라 슈만의 삶과 그녀의 음악에 몰두했던 생애를 기념하고자 녹음한 피아노 솔로곡들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그녀의 음악 인생의 대표적인 면들을 반영하고 있다.

하여 수록하였다. 예를 들어 젊고 활기찬 곡들, 흥취적인 곡들, 로맨스 곡들, 그녀가 결혼한 후의 좀 더 깊이 있고 성숙한 곡들 - 특히 당시 그녀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내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하여 개척해 나간 음악 인생이 반영된 곡들, 그리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을 공부하며 작곡했던 대위법적 곡도 한 곡 포함되어 있다. 이 음반은 미국 국내외에서 아마존, 애플 뮤직 등에서 CD나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동·창·회·비 온라인남부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동창회, 모교 재학생 미주 인턴기회 지원

모교발전 기금·장학금 2만달러 후원

미주동창회는 2년전 2019년 10월 홈커밍 행사 참석시, 모교 학생처와 재학생의 그로브 리더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미주내 동문운영 로펌, 회계법인 또는 기업 등에서의 재학생 인턴 제도 개선을 위한 MOU 체결 회의를 가졌었다.

공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동 후원을 위해 4월5일 모교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며 모교발전 기금, 장학금 중에서 2만달러를 후원하였다. 미국 국제청 (IRS)규정에 의하면, 미주동창회가 후원동문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후원금의 사용도 미국내에서 미주동창회 설립 목적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서울대 국제하계강좌 개최

동문자녀들에 특별 장학금

서울대학교가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제 하계강좌(온라인)"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기간 중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해외 대학 재학생이 함께 우수한 교수진에 의한 강의를 들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장학금 수혜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2. 기간: 2021. 6. 22(화) ~ 8. 2(월)
등록마감: 2021. 5. 28(금)
3. 교과목: 일반선택(10개, 서울대 교원 강의) 및 전공선택(15개, 외국대학 교원 강의)
4. 강의언어: 영어 (과정 완료시 수료증 및 영문성적표 발급)
5. 대상: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6. 특징: 여름방학 중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우수한 서울대 교수진 및 외국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학점 취득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할수 있는 좋은 기회
7. 관련문의: 담당자 (02-880-4449, summer@snu.ac.kr),
8. 홈페이지: https://mail.snu.ac.kr/

2021 Seoul National University Online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June 22 - August 2
This summer, the SNU ISP returns in a FULLY-ONLINE format to allow SNU and international students to learn together and mingle virtually.
2021 Summer Courses
Virtual Exchange - connecting you with students across the world
Online Application by May 28
Many Scholarships available!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SNUAA-USA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30차 평의원회의 남가주 개최

S N U A A L U M N I A S S O C I A T I O N U S A

2021년 6월25(금)~27(일)

옥스포드 호텔 Oxford Palace Hotel |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제30차 평의원회의 장소가 현지사정으로 LA시내 코리아타운의 옥스포드 호텔로 변경되었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가주에서 열리는 제 30차 평의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세가 급속히 꺾이면서 6월까지의 미국내 대부분 일상생활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가주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단, 임원진, 동문들은 평의원회의의 위생적인 진행과 참석자들의 만족스런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이번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시어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단합과 도약의 또다른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 (금)	6월 26일 (토)	6월 27일 (일)
1:00 PM - 2:30 PM 등록 접수	9:00 AM - 12 NOON 제30차 평의원회의	8:00 AM - 9:00 AM 제16대 회장 초청 조찬
2:30 PM - 5:00 PM 세미나	12:30 PM - 2:00 PM 서울 총동창회 초청 오찬	10:00 AM 지역 관광/골프
5:00 PM - 6:00 PM 휴식	2:00 PM - 3:30 PM 차차기 회장 선출	
6:00 PM - 10:00 PM 만찬	3:30 PM - 4:30 PM 이·취임식	
	6:00 PM - 10:00 PM 만찬, 공로패 수여	
	10:00 PM - 11:00 PM 지부장회의	




이·취임식 공동준비위원장

<p>제 15대 회장 신응남 (646-523-9606) 사 무 총 장 연영재 (201-233-7108) 총 무 국 장 문현호 (646-770-7028)</p>	<p>제 16대 회장 노명호 (626-991-4457) 사 무 총 장 강호석 (714-260-5483) 총 무 국 장 이호진 (818-321-2214)</p>
---	---




가족과 함께한 김광호 변호사(오른쪽부터 딸 제인, 김변호사, 아들 필립, 부인) 지난해 대통령 후보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김 변호사(오른쪽)



“먼 미래를 바라본 한인사회 큰 인물”

지난 2월, 편집부에서는 3월 동창회보 특별인 인터뷰에 김광호 동문을 섭외하고자 그에게 연락을 했다. 김 동문은 흔쾌히 우리의 제의에 응했고 본인 과 가족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인터뷰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 로 진행하고자 약속을 정하고자 다시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대답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며칠 뒤 동창회로 김 변호사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김광호 변호사는 1985년 퀸즈컬리지 검사로 취임하면서 한인 최초의 검사로 기록됐다. 김 동문은 1944년 서울에서 고 김중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기중고교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난 1970년 도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MBA)와 포담 법대 법학박사(JD)를 졸업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인 1 세대는 청과, 수산, 세탁, 내일 등으로 동포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며 “가족 중심의 영 세성을 탈피해 기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더 많은 기업과 기업가를 배출해 고용 창출과 한인사회 위상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스사에서 김 변호사가 맡은 업무는 은행 지역 산업개발기구와의 재무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감사 세무 회계 감독 특허 등 지적 재산권보호 계약서 작성 관련 법무 등이었다.

친구 결혼식에서 첫 눈에 반한 부인 김미



고 김광호 (문리 62)

퀸즈컬리지 검사 취임... 한인최초 검사로 기록
해박한 지식·온화한 성품으로 한인사회 존경
부친에 장녀 제인까지 3대에 걸친 법조계 집안
미주동창회 종신이사과 후원광고로 발전에 큰 힘

특별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김 변호사에 대한 여러 자료를 읽고 동문들께 소개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인터뷰 내용을 전할수 없게되었다. 하지만 뉴욕동창회 이사장과 종신 이사를 역임하는 등 미주동창회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그의 생애를 회보 한 면을 할애해 동문들께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양(현 뉴저지 불임 클리닉 원장) 여사와 1976년 결혼한 그는 1남1녀를 둔 가장이었지만 부친의 뒤를 이어 법조인이 되기 위해 7년간 낮에는 공인회계사 일을 하면서 야간에 법대를 다니던 끝에 법학박사 학위에 이어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85년 김 변호사가 퀸즈컬리지 검사로 임명된 데에는 당시 퀸즈 지역에서 청소년 문제와 조직폭력이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퀸즈컬리지이 한인사회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물색하게 됐으며, 당시 뉴욕한인회 권익옹호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변호사의 활약상이 알려진 것이 컸다. 그는 검사 임명 후 청소년 범죄와 아시아인 조직폭력 전담반에서 활동했으며, CPA 경력을 인정받아 경제사범 수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검사직을 거쳐 한인은행 이사장, 기업체 중역으로 끊임없이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1997년부터 이민 1세가 되어놓은 내일업을 토대로 한인 2세대가 새로운 활로를 뚫으려는 진취적 기상이 보였던 한인 종합뷰티 전문업체 키스프로덕츠(대표 장용진)와 함께 하게 된다. 이곳에서 상무이사과 재무최고경영자(CFO)를 거쳐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인사회는 경제 자립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미국 정치 참여의 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될 정도로 발전했다. 앞으로는 사회 환원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편집자 주>

김광호 (문리 62)

- 1944. 11. 14년생
- 전 퀸즈 컬리지 검사
- 키스사 (주) 수석전무, 고문
-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 (62 학번)
- 1970년 7월 도미유학
- 콜롬비아 (Columbia Graduate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원 MBA
- 포담 법과 대학원 (Fordham Law School JD)
- 경기 고등학교 뉴욕 회장 역임
- 서울대 뉴욕 이사장 역임
- 뉴욕 주 공인회계사 (CPA)
- 뉴욕 주 변호사
- 뉴욕 퀸즈 컬리지 검사 (미동부 최초 한인 검사)

조사

고 김광호 동문님 영전에 바칩니다



인생은 연습이 허용되지 않는 단막극입니다. 누구나 단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엄숙한 인생이라는 무대에 오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며 대본도 없이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인생이란 무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보는, 다름이나 나 자신에게 맡겨진 유일무이한 '배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역을 알고 그것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연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한 운명이며, 그 임무를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인생이란 단 한번뿐인 무대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배역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기원전 일세기 로마시대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마르쿠스 키케로는 아테네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책 [의무에 관하여]를 썼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자신의 운명을 예견이라도 한 것 처럼 마치 아들에게 유언을 하듯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그 책을 통해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키케로는 아들에게 어떤 일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세가지를 늘 숙고하라고 충고합니다. 첫째, 그 일이 명예스러운가? 둘째, 그 일이 정의롭고 유익한가? 셋째, 명예와 유익이 상충할 경우 어느 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 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명예로운 삶'이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위대함이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날 때, 비로서 완성되는 높은 가치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그의 깨달음을 전합니다. " Non nobis solum." "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부는 조국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친구들의 소유입니다."

고인이 되신 김광호 서울대학교 동문께서는 그가 속했던 가정, 교회, 사회, 조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깊이 사랑했던, 모교와 미주동창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에게 맡겨졌던 엄숙한 의무를 진실하고 따뜻한 심성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부친께로부터 받은 "수신제가 인류복지(수신제가 인류복지)" 의 가훈을 금과옥조로 소중히 지켜, 검사, 변호사, 기업인으로서 이웃과 사회의 번영 그리고 차세대의 육성을 염두에 둔 유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무대에서 그에게 주어진 배역을 무엇인지 깨닫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연출한 우리 모두의 잊지 못할 친구입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늘 나라에서 평안한 영면을 누리십시오. 영생 복락을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6일
신응남 배상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장

<뉴욕 한국일보 기사 참조>



남가주 골프 대회 성황리 개최

53~94학번까지 160여 선후배 동문 참석 합동 단합

2021년도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 토너먼트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2월, 신년 총회도 무기한 미루고 회장 이취임식도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하여 할 정도로 아직 동문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2021년도 남가주 총동창회 최용준(수의대 81) 회장은 총회에 앞서 골프 토너먼트 대회를 먼저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물론 쉽지 않은 결단이고 준비였다.

최근 팬데믹 효과로 모든 골프장이 호황이라서 샷건은 커녕 토너먼트 유치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임원들은 남가주 모든 골프장을 컨택할 각오로 찾은 끝에 LA에서 약 80마일 떨어진 유리메타의 베이 크릭 골프장 섭외에 성공했다. PGA 급 프라이빗 골프장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보통 토요일에 열리는 행사를 일요일로 정하고 에어레이션 1주일 후에 하여 아직 그린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샷건으로 진행하고 트라이팁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한 뷔페로 저녁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다.

최용준 회장에 남가주 총동창회 첫 80년대 이후 학번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오랜 시간 총동창회를 만들고 이끌어 오던 선배들이 나날이 고령화 되어가는 동창회의 쇠신을 염원하였고, 이에 부담감을 감수하면서 결국 회장이 된 최 회장은 세대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유튜브 사업을 시작하였고 임기 중의 계획된 모든 행사에 전 세대의 동문들이 고루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었다.

이번 골프 토너먼트 행사는 그런 의미에서도 대성공이었다. 3월에 골프대회를 먼저 이메일로 공지하였으나,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각 단대 회장들과 다양한 동문회 단체 연락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골프대회를 알렸다. 이러한 노력이 동문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예약 마감 일보다도 열흘이나 먼저 144 석 모두 차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진행하는 임원들과 연회에만 참석한 동문까지 합쳐 모두 160명의 동문이 모였다. 53학번부터 94학번에 이르기까지 40여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다양한 세대의 동문들이 고루 모였고, 노명호 미주 차기 회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들은 물론 박경재 LA 총영사 또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하여 평소 만나기 힘들던 동문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80년대 학번과 90년대 학번의 동문들도 많이 참가하여 보다 젊은 동문회 모임이 되었다.

최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많아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즐기는 많은 동문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골프를 치지 않거나 참가하지 못한 동문들도 홀 스폰서를 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임원들은 월 1회의 정기 임원 회의는 물론, 필요에 따라 자주 연락을 취하여 철저하게 계획하고 분담하였다. 임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조차 오랜만의 동문회 행사에 한마음으로 도움을 주었다. 거리가 멀어 운전하기 부담스러운 선배들을 모시고 오는 후배들도 있었고 오로지 카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 동문도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실력이 좋은 사람 뿐만 아니라 아직 초보인 사람들도 수상의 기회가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을 많이 준비했다. 예를들면 공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나



미주동창회 차차기 회장후보 LA방문

(이상강 의대 70)

지난 3월19일 하트랜드 지부의 서울대 미주동창회 차차기 회장 후보 이상강 동문 내외가 LA를 방문했다. LA에도 자택이 있어 Oklahoma를 여행하며 가끔 방문한다. LA를 방문할 때마다 남가주 동문과 만남을 가지며 친목을 이어가고 있다. 마침 바둑동호회(회장 김기형 상대) 모임이 있어 이 후보의 환영 저녁모임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최진석 법대 회장은 환영사에서 "먼거리도 불구하고 남가주 동문들과 우애를 다지며 서울대의 지역별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이 후보의 폭넓은 친분에 감탄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도모하는 많은 일들을 적극 협조하는 자리의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거리를 넘어 함께하는 마음이 가지며 친목을 이어가고 있다. 마침 바둑동호회(회장 김기형 상대) 모임이 있어 이 후보의 환영 저녁모임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최진석 법대 회장은 환영사에서 "먼거리도 불구하고 남가주 동문들과 우애를 다지며 서울대의 지역별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백옥자 조직국장>



뉴욕 골든클럽 올해 첫 골프대회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8명 참가 성료... 미주동창회 사은품 회사



뉴욕 골든클럽의 올해 첫 골프대회가 4월22일 목요일에 뉴저지 Sunset Valley Golf Club 에서 열렸다. 강풍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38명의 회원이

여자부 회원들이 미주동창회(회장: 신응남)가 기증한 골프우산을 들고있다.

참가, 코로나로 서로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마음을 달랜 시간이었다. 회원들은 모두 백신을 맞고 안전한 상황에서 대회를 진행하였다. 골든클럽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한차례 골프대회를 갖는데 갑자기 온도가 푹 떨어지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었다. 본 클럽은 올해 4월부터 새로 취임한 홍종만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사랑방과 운동장을 만들자는 계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미주동창회는 대회상품을, 이준행 골든클럽 명예회장은 상금으로 \$1000을 쾌척하여 대회의 운영을 풍성하게 했다.

/ 추모사 /

윤경의 선배님을 애도하며



오인환(문리 63)

윤경의 (공대 57학번) 선배님은 지난 4월 8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작고 하셨습니다. 4월13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으로 힘든 가운데도 100여명의 가족, 서울대 워싱턴 동문회 동문들, 서울고 워싱턴 동문들, 부인쪽 이화여대, 이화여고 동문들, 친지들이 모여 '사랑과 나눔의 교회'에서 고별 예배와 Fairfax Funeral Park, Fairfax, VA에서 하관 예배로 마지막 작별식을 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1961년에 서울대 공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1969년에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 취득한 후에 원자력 전문 Babcock and Wilcox (후에 불란서 계열 원자력 회사 AREVA사에 합병)에 입사 하여 40년 봉직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원자로 결함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국제적으로 자문을 하며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근무하던 미국회사에서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에 다년간 파견 되어 기술이전에도 공로가 아주 컸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대 동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며 앞으로 재미 한인으로 언제 이런 전문가가 나올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문분야가 특이하여 은퇴 후 워싱턴으로 이사한 후에도 7년간이나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2004년 은퇴 후에는 Lynchburg, VA 에서 워싱턴 지역으로 이사하여 와싱턴 한인교회와 와싱턴 사랑의 교회를 섬기며 동창회(대학교, 고등학교)를 위하여 수고 힘을 보람으로 여기며 사셨다고 부인 이정렬 여사는 자랑스럽게 강조하셨습니다. 부인 이정렬 여사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고 윤경의 동문 영결식에 참석한 동문.



▶미주동창회에서 보낸 근조화환(왼쪽)과 워싱턴 동창회에서 보낸 조기.

Potomac Forum (회장 이영목, 공59) 회원으로 월례 모임에서도 전문분야를 강의하는 등 학술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윤경의 선배님 같이 전문분야에서 출중하고 후배들을 아끼는 선배를 잃은 것은 후배들로서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동문회로서는 우수한 인재를 잃게 되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인 이정렬 여사와 2남 1녀를 두셨는데 장남과 장녀가 Harvard 대학으로 월례 모임에서도 전문분야를 강의하는 등 Full scholarship 받고 U. of Virginia를 나왔다고 합니다. 윤 선배님이 자랑하던 일화 중에는 장남 John은 부인도 Harvard를 나왔고 손자 2, 손녀 2를 포함하여 가족 6명이 모두 Harvard를 나와서 부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2대 미주동창회장직 역임>

/ 부고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조순분 (간호 57)



조(최)순분 동문이 지난 4월 10일 81세로 별세했다. 졸업 후 일리노이주 엘름허스트 대학에 수학과에 1971년에 일리노이주 한국인 제1호 간호사로 활동했다. 1963년 조영환남(향해도인 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2남, 손자 2, 손녀 2명을 두었다. 조동문은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부회장(1991), 미 중서부 간호사 협회 회장(2003)을 역임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동창회 공로상 표창(2002), 한국 평화 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고) 윤경의 (공대 57)



윤경의 (공대 57학번) 동문이 지난 4월 8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윤 동문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워싱턴 DC 지부 30대 회장을 역임했고 Westinghouse에서 공학박사로서 오랜동안 원자력발전소 일에 관여하며 원자력발전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원자로 결함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국제적으로 자문을 하며 명성을 떨쳤다. Potomac Forum 회원으로 전문분야를 강의하는 등 학술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문화정신의학에 평생을 바친 ‘지성인’



/ 사람, 사람들 / 김해암 박사 (의대 52)

김해암 박사는 문화정신의학 분야를 20년 동안 강의해 오며 코넬 의대에서 정신과 수련의 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종합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직장 경험과, 공립과 사립학교의 정신과 상담의사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함께 개인연구소를 통해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맨하탄에서 하고 있다. 한인 정신건강 협회를 조직, 회장으로 활동하며 유학생, 한인 2세들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뉴욕한인회, 뉴욕 라이온즈 클럽 등에서 동포들의 정신건강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한인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한 김 박사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중신이사이기도 하다. 정신의학 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김 박사를 특별인터뷰에서 만나본다.

<편집자 주>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의 부친이 동경 유학에서 돌아와 서양의 목축업을 시작 한 곳이 함경북도, 두만강 강변에 있는 옛 6진의 하나였던 중성이라는 고장이다.

그 비옥한 강변 땅은 온갖 곤충의 왕국이고, 수십 가지의 개구리, 온갖 조류, 산에는 붉은 진달래가 만발하고 야생 청포도(Blue berry), 깨미 Hazelnut 등으로 덮여있고, 우리 목장 뒤 산은 맛있게 뽕은 뽕 산이 있어 잣소 방목에 편했으며 일본인들이 많이 이주 해 온 고장이기도 하다.

약 10년 전에 백두산 기행을 중국 쪽에서 했을 때 중성을 강북 만주 땅에서 보고 온 기억이 새롭다.

또 하나의 이색적인 기억은 내가 8살때 평양 고모님 댁에서 일본학교에 다니던 기억이다. 처음으로 고모가 모시던 영국 성교회 차드웰 신부님 방을 내가 차지 했는데, 그 분이 일제가 영국으로 강제송환 된 후였다. 서양문화가 잔뜩 담긴 그 방에서 나는 2년 반을 공부하면서 즐겼다.

■서울대에 입학하신 계기는

14 후퇴로 우리 가족은 대구 동촌에, 나는 부산에 살던 고모 댁에 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1952년에 부산에서 서울 의과 대학에 과에 입학했다.

당시 나의 소원은 문리과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의대를 가면 병역을 졸업 후에 간다는 이유로 2차 지망이었던 의대로 진학했다. 아마도 지질학을 했으면 수입 면에서는 월등하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1958년, 의대를 졸업하고 군에 복무하면서 장래를 구상하였다. 중년 선배인 성형외과 의사가 수련을 마치고 같이 개업하자고 끌었으나 나의 희망은 정신과에 있었다. 중학교 때 이웃 여자친구가 사변 중에 결핵이 전신에 퍼져 사망했을 때 정신이상이었다

는 소식이 충격이었고 의대 3학년 때에 정신과 교실에 가서 숙직하며 인슈런 속 치료를 경험한 것도 하나의 동기였고, 또 당시 서울의대 학장이었던 명주완 박사가 정신과 교수로 미국으로 가서 역동학적 치료를 배워 오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유학 길에 올랐다.

1.4후퇴로 평양서 부산으로 이주 고모댁에서 학업

모교 정신의학,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자 유학길

한의학 면허 취득으로 코넬 의대학생들에 강의도



1957년 서울대 총장 윤일선 박사와 함께앉을 오른쪽 끝이 김 박사.

■정신과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는

1960년대는 정신분석이 전성을 이루던 세대라 정신분석으로 인격 완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였다. 1959년 서울의대 대학원 과정에 이부영 교수와 내가 합격했는데, 이부영 교수는 스위스에 가서 칼 융 학파 심리분석을 하고 나는 미국에서 신 프로이트 파 정신분석을 하여 모교의 정신의학을 세계수준에 기여 하자고 했던 것이 계기

에 불만이 있다면 의식/무의식 적으로 다가오는 자멸의 위험을 등한시 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무서운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면 21세기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자학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프로이드가 만년에 인류문명의 멸망을 내다 본 비판을 상기 해야한다.

■ 한의학 면허를 취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의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는

내가 25년간 일하던 카톨릭 종합병원에서 은퇴 후 혜택과 더불어 내가 원하는 대학 1년 수험료를 내주겠다는 호의를 받아 한의학 과정을 마쳤다. 뉴욕 한인사회 유지들의 간청으로 뉴욕의 한의과 대학을 한 사립대학 부속으로 설립하려고 노력하다 뉴욕주가 인가까지 받고 그만 둔 꿈을 이루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학위로 1990대 중반에 코넬 의대 학생들에게 한의학 강의를 하게 되었다 침술을 정신병에 이용하는 방법도 시도했는데, 특히 강박증의 경우 한, 두 환자의 효과를 본 경험으로 앞으로 연구 대상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 뉴욕한인회, 뉴욕 라이온즈 클럽 등 뉴욕한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데.

1959년에 뉴욕에 도착하여 줄곧 뉴욕 주변에 살아왔고 또 일 해 온 관계로 뉴욕은 누구보다 못지 않게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첫 뉴욕에서 가진 1959년 크리스마스가 콜롬비아 대학 I-House 에서 있었는데 모인 사람이 30-40 명 정도였고, 매년 그 정도 모인다고 했다. 당시 남궁 총영사와 부인(나의 동창생의 누님)은 못 나왔으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 한다. 당시 맨하탄에 한국 음식점 한 곳과 삼복 식품점 한 곳 뿐이었다.

몇 년 후에 한인회가 생기고 라이온즈클럽도 생겨 모임에 참석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그 당시 정신건강, 특히 정체성의 문제가 지금 보다 훨씬 심각했다.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내 나이 세대는 일본인 행세를 하여 차별 대우를 모면하기도 했던 시대이기도 하다.

나는 뉴욕의 유명한 Free Walking Tour가 매달 있는데 수십년 간 기회가 있는 대로 참석하여 뉴욕을 구석 구석 돌아 다니는 취미를 가졌고, 각종 음식점을 찾아 다니는 것도 하기도 했다.

1997년에 병원 해프타임 직장에서 은퇴 한 후에 7년 간 자원봉사로 한인 정신건강 크



2013년 한국에서 열린 가족 연극 경연대회

리닉에서 매주 하루를 어려운 환자 진료를 했다. 여기서 보기 어려운 한인 환자를 많이 보고(한국에서 개업을 방불하는 경험), 운영의 관한 것도 도왔다.

뉴저지의 경험을 살려 뉴욕 한인사회에 정신건강 협회를 조직하였고 한인 정신건강 협회, Korean American Behavioral Health Association(KABHA)라 칭하고 매년 100여명의 정신건강 학위를 따고 졸업하는 한국 2세대들 모아 친목하고 한인 사회를 돕는 행사를 15년 가량 지속했다. 내가 첫 2년을 회장으로 있었으나 자금을 끌어들이 봉사 활동을 벌려야 하는데 실패했다. 남에게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함을 알았지만 직장을 만

는 문제의 해결을 분석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험 할 수 있었다. 부부 치료도 해보고, 애들과 함께 가족 치료도 해 보았기 때문에 정신치료 라는 것이 지식 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만 되지 않는 것임을 발견한 나는 문화 철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해 왔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새로운 경지를 가고 있는 인류 문명은 아마도 새로운 문화 철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나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초기에 레이디 퍼스트를 철저히 시행했다. 누가 하라 마라 한 것이 아니라, 저절

뉴욕한인 정신건강협 조직... 유학생, 한인 2세 도와

타인종 아내와 결혼... 문화철학 연구의 계기

수준높은 아시안 문화전과, 인종협오의 장기적 대책

한국에서의 풍습 탈피, 후손들의 미국인 역할 환형해야

들고 지도해 주고 하자면 생애를 받쳐야 가능함을 실감했다.

따라서 나는 개업을 함으로써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고, 유학생들의 학교 문제, 법적 소송, 비자 문제, 학교 당국과의 갈등, 등의 내용을 다루었고 재력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언제나 무료로 봉사해 왔다.

나는 미국 공립 학교, 사립대학 등에서 의뢰오는 환자를 20여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경험을 해 본 경력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타인종인 아내와의 결혼생활로 다문화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남다르실듯 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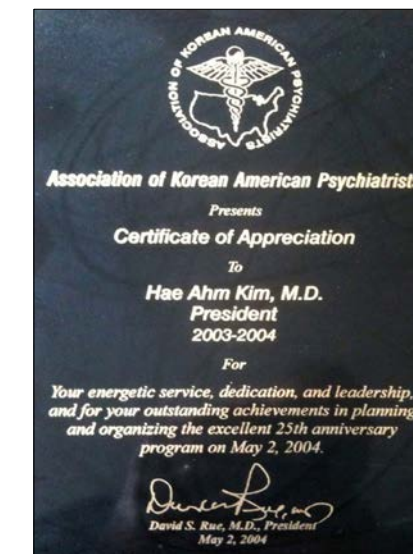
6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지내 온 사실을 다 알게 된다. 그 입장에서 나의 인생 경험을 솔직하게 말해 본다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인 듯 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터 놓고 Inter-marriage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기때문에 용기를 내어 말을 해 보려 한다. 억지로 백인 여자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가족을 중요시 하는 한국적인 정서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간다. 나의 정신분석 수련 과정에서나, 나의 개인 분석 치료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인종이라



1975년 찍은 가족사진



아내와 함께



코리안 아메리칸 정신의학사

화가 얼마나 서양인들에게 다양한 성격 을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으로, 인격장애가 동양인에 비해 비교적 심각하고 많다는 결론을 얻은 것은 정신과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서양 사람들은 사고의 전개가 우리 보다는 빠르고 다양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격 분석을 하려면 심층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고 방식은 동양인이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 중의 하라고 본다. 이렇게 나는 아내가 백인을 대표한다고 보고 나로서 일반적 판단을 시도해 보았다.

■ 현재 미국내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인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언제나 미국에 있어 온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조심하고 정치적으로는 반대 시위를 해서 위상을 차리고 법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변모한 것은 동양인에게 큰 다행으로 본다. 아시안을 부러워 하기 때문에 질투심을 갖는 것은 백인 뿐 아니라 흑인이나 라티노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은 동양인의 미와 특성을 서양인에게 잘 알리는 문화를 창조해 내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 눈이 크고 색이 있고, 얼굴에 곡선미가 있다고 아름답게 보는 관점에서 동양적인 매끈하고, 섬세한 아름다움 또 그 미덕을 찾아 내고 표현하는 기풍이 생겨 나는 날이 오리라고 본다.

■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차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미국 땅에 자리잡고 사는 우리 후배, 2

세, 3세대들이 타 인종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다만 주의 할 것은 각자의 인생을 과거와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한국 땅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민 올 때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여생을 사는 것에서 탈피하고 우리 후손들의 새로운 미국인 역할을 환형 해야한다. 무슨 말이나 하면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신대륙에 와서 그 전통을 그대로 답습, 300여년 후에 현실을 바로 보고 독립을 했다. 우리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 자손들이 세계의 시민이 되어 새로운 미국사회를 다른 온갖 인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그런 의식을 차세대들에게 심어주고 밝혀 주는 지혜를 공유해야 하겠다는 말을 해주며 나 또한 다짐한다.

김해암 동문은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뉴욕시립병원, 킹스 카운티 병원
- 뉴욕 정신분석 학교 과정 수료
- 국제 집단치료 전문의, 미국 가족치료 전문의
- 현재 뉴욕 맨해튼에서 정신치료와 정신분석 전문의로 개인 병원 운영
- 현재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 콜롬비아 대학 헤이만 인간학 센터에서 동서양 비교 문화연구



서윤석(의대 62)

엎드려라

배암의 침방울을 피해
살고 싶은 사람들아 엎드려라
홀로 빈 집에서라도
먼지보다 더 작은
보이지 않는 적을 피해 엎드려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
울지도 말고 침묵하라
사탄의 차가운 몸짓들
달콤한 냄새와 향기 풍기는
요망妖妄한 춤소리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두 눈 감고 엎드려라

죽음의 씨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연약한 사람들아 엎드려라
꿀벌이 주는 세상이
평 뿜어줄 새벽이 오면
인내忍耐로 엎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조)봉완 (법 53)

그해 겨울

혹독하고 갈혀있던 겨울이 지나갔다
어떻게 지냈던가 돌이켜 본다
환경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여
낮에도 춥불키고 꽃을 꽃아 놓았다
글도 쓰고 “춤” 회의에도 참석 했더니
추위도 덜 한 듯 시간도 빨리 가더라



맹꽁아!



김태형(의대 57)

전국 방방곡곡 여기 맛집 저기 맛집
이 방송도 먹방 저 방송도 먹방
앞 길 건강원에서도 뒷골목 영양탕 집에서
입터지게 먹어대는 남녀노소
배를 풍선처럼 불리는구나!

갯벌에 바다에 산에 개울에
수천 년 함께 살아온 무수한 생명들

그물, 텃, 올가미, 함정에 채이고

칩장* (蟄藏)하는 길짐승 날짐승 곤충까지 덮치니
어느 작은 숨이라도 살아남겠나

옛날 당 시인 한유 (韓愈),
사람답게 살려거든
뱃속은 시서(詩書)로 채워야 한 댔는데
숲속의 맹꽁아
너는 오늘 무엇으로 뱃속을 채웠느냐?

*칩장: 겨우내 잠들었거나 숨어 지내온



김경(간호 69)

/ 여행기 /

브라이스캐년 국립공원을 다녀와서

브라이스 캐년은 언제 보아도 그 색이 참 신비하다. 대낮에 잠시 와서 내려다본 사람들도 감탄하지만 해 질 때와 해 뜰 때를 보면 그 찬란한 빛깔을 잊을 수 없다. 새벽에 별이 총총할 때 숙소에서 나와 '해 뜨는 언덕'(Sun Rise Point)으로 가서 해를 기다리는 순간은 언제나 설렌다. 아침해를 받는 Sun Rise Point의 후두들은 거룩한 성전 같다. 중생대의 백악기(1억 4천만 년 전-6천4백만 년 전)에 형성된 땅에 바닷물이 흘러 들어왔다.

천 만년 전 록키 산이 솟아오를 때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며 바닷물은 흘러 낮은 곳으로 가고 바다였던 이곳은 고원지대가 되었다. 바닷속에 있던 지층이 갈라지고 내려앉으며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다 밑 지층에서 후두(HooDoo)가 생겨났다.

대단한 세월의 힘이다. 백 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여기는 자이언 캐년이나 그랜드 캐년처럼 흙을 쓸고 내려가는 강이 없다. 일 년 중 200일 이상이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녹아 바위들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여 조금씩 부서지고 그 부서진 조각들이 비와 눈에 쓸려 내려가 지금의 이 신비로운 조각품들을 만들었다. 파수꾼도 만들고 소어의 망치도 만들고 빅토리아 여왕도 만들었다.

흙의 성분에 따라 빨리 무너진 곳도 있고 천천히 무너지는 곳도 있다. 바위 사이에 커다란 틈이 생기기도 하고 땅속의 성분에 따라 어떤 부분은 속살이 연 분홍빛이다. 처음에는 벽처럼 생겼다가 벽이 알아져 구멍이 뚫리고 점점 더 무너져 내려 가느다란 기둥이 되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의 빌딩 같다고도 했다. 만 이천 년 전부터 이 근처에 사람들이 살았다. 파이우테(Piute) 인디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바위들은 원래 사람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싸움질하고 노름하다 신의 노여움을 사서 영원히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1870년 동쪽에서 온 백인들에게 살던 곳을 내어 주어야 했다.

원주민들이 '인간들처럼 서있는 바위'라고 불렀던 후두(HooDoo)들이 아침 해를 받고 깨어난다. Sunset Point에서 내려가는 나바호 트레일에서 시작해 빅토리아여왕이 서있는 Queen's Garden을 거쳐 Sunrise Point까지 올라가는 길을 이곳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마일이라고 말한다. 고도가 백두산만큼 높은 곳이라 내려갈 때 올라올 일을 생각해서 능력만큼만 가야 한다. 여기서 1875년부터 1880년까지 살다 이주한 말일성도 예수교 신자였던 Bryce는 '소 한 마리 잃어버리면 난리나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공원 입구에서 5마일 안에 Sun Rise Point, Sun Set Point, Inspiration Point 같은 가장 볼 것이 많은 곳들이 있고 5마일 지점을 지나면 겨울에는 아예 길을 막아버린다. 공원 안에 있는 숙소에 머물면 해 지는 것, 밤에 빛나는 별을 보고 새벽에 해 뜨는 것도 볼 수 있다. 국립공원 안에서 원하는 날 숙소를 얻으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운이 좋으면 며칠 전에 취소한 사람의 방을 잡을 수 있다. 웨스턴 캐빈이 해 뜨고 지는 걸 보기에는 제일 좋은 숙소이다. 방 안에 벽난로도 있고 어떤 방에서는 침대

에 누워 유리창으로 수많은 별들도 볼 수도 있다. 새벽 세시쯤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보니 지붕 밑 유리창으로 별들이 보였다. 가만히 일어나 담요를 뒤집어쓰고 밖으로 나가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과 은하수를 보았다. 하늘 가득 별이다. 오리온자리 쌍둥이자리, 플레이데스, 카시오페아. 미국의 보통 시골에서 맨 눈으로 2500개의 별이 보인다는데 도시와 거리가 먼 이곳은 어둡고 고도가 높아 7500개의 별이 보인다고 한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별을 보여 주려고 공원 안의 가로등은 모두 높이가 낮고 아래를 향하고 있다. 공원에서 해 주는 배려가 고맙다. 안내소에는 해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 달 뜨는 시간을 언제나 알려준다. 멀리 갈 것 없이 선 셋 포인트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떠 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도 좋다.

파수꾼에게 해가 비친다.

소어의 망치(Thor's Hammer)도 빛난다. Thor는 천둥, 전쟁 농업을 맡은 신이다.

꽃도 피어났다. 해 뜨는 것이 순간이라서 한 번에 여러 곳을 볼 수는 없으니 잘 결정해야 한다.

브라이스 캐년, 아침햇살에 빛나는 후두와 밤에 빛나는 별들을 보려고 열 번 넘게 왔다. 그래도 어느 날, 왠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면 나의 시간이 저 바위들이 견뎌온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지 느껴 보려고 또 오고 싶어 질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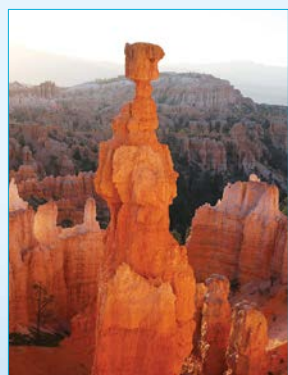
해를 기다리는 사람들



공원 안의 숙소 웨스턴 캐빈



성전같은 브라이스캐년의 언덕



소어의 망치





양 민(공대 77)

/ 교육칼럼 /

교육의 뉴 패러다임을 선도할 자

2019년 말에 시작되었고, 2020년 봄부터 체감할 수 있었던 코로나팬데믹은 현재를 살고 있는 세계시민들에게는, 각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뒤흔든 가장 큰 사건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역사속에서 그만큼의 중대한 사건들을 찾을 수는 있지만, 현존하는 인류가 직접적으로 겪었거나 느꼈던 사건들 중에서 비근하는 사건들을 보자면, 열강들간의 전쟁이나, 세계대전, 각종 국지전등의 전쟁들이나, 스페인독감, AIDS 등의 병마들, 그리고 대공황등의 세계경제적 재앙, 독립과 새로운 경제블록의 탄생, 테러등의 정치적 쟁투들, 냉전과 냉존의 종식, PC의 등장, 인터넷혁명, 미중의 밀월, 중국의 성장등 주요 사건들이 이 시기에 점멸하였고, 한국으로 치자면 조선의 멸망과 해방과 독립, 한국전쟁, 폐허로부터의 재건, 10위권에 진입등, 집간 접적으로 우리네 개개인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온 세계의 거의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의 위협과, 일상생활의 거의 중단을 강요한 사건으로써는, 코비드19 만한 사건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게 한다. 이 사태는, 이미 1년이상을 끌고 있으며, 설혹 문제수습이 순조로울지라도, 그 여파가 수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혹여 순조롭지 않다면, 앞으로의 남은 인생기간 또는 인류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어떤 식으로 끼칠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한가지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것이 장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중대하게, 그리고 사회전반에 큰 규모로 속속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학교육과 진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식과 의지에 변화를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능력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Landslide와 같은 변화가, 차츰 차츰 있을 것 아닌가 짐작해 본다.

초중고 각급교육기관은, 이제 1년이 넘도록 온라인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대면수업의 양을 줄이고, 캠퍼스내 사람 수를 제한 하는 등의 방안들로 이 기간

을 보내고 있다. 교육기관이 이제껏 해오고 있는 정규교육은, 성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대에, 대체 육아와 교육이라는 임무와 함께, 아이들을 부모의 보살핌으로부터 인계받아, 자유를 제한하고, 안전하게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사실 두번째인 대량수용이라는 역할은 인류 역사에 있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인데, 국가운영과 함께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진 20세기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과

것이 아니다.

인류가 대중교육시스템을 수용하고 발전해 오고 있으나, 이런 형태의 대중수용 교육시스템이야말로 오직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유일무이의 최선책이었다는 것은확실하다. 그런데, 코비드19은 이 유일무이의 최선책에도 일대타격을 가한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교육시스템은 전인류적으로 일괄 정지될 것 이었는데, 인터넷 덕분에 그

“ 대중교육이 이렇게 1년 이상, 버벅대고 있는 사이에, 전세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대면수업 시스템의 장단점과 비대면수업 시스템의 가능성을 맛보고 몸소 체험해 버렸다... 이 교육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실상 인류의 많은 시스템에 변화가 예고되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 시대의 교육시스템의 변혁은 그야말로, 전지구적이고 초스피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초반부터 주옥 언급한 현존인류의 경험 안에서 비로소 일어난 일인 것이다. 이 대중교육은 순전히 20세기의 변혁의 와중에 급조되고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가정사실화 되었으며, 인간사회가 굴러가는 톱니바퀴에 함께 끼워져서, 큰 변화없이 1세기를 지탱해 오고 있는 인류존재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 서구의 대중교육제도는 전세계로 퍼져 나갔고, 진리로서 굳어졌다. 그런데, 이 구조가 이번 코비드19으로 순식간에 멈춘 것이다. 실제로 완전히 멈추지 않았더라도, 거의 멈추었거나, 교육효과 면에서 거의 효용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의 대면수업이라는 제도가 뭐 얼마나 훌륭했나를 따지자는

교육의 실효가 어찌 되었건 간에, 최소한 시스템은 굴러가는 듯한 모양새라도 가지고 한 해가 넘어가고 있다.

모양새는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큰 문제이다. 현대대중교육의 둘째 번 역할—부모 일하는 동안 아이 맡아주는 수용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현대대중교육의 첫째 역할—출중한 시민으로 만드는 교육이라는 역할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깊히 생각하지 않아도, 교육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교육의 질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판이지만, 교육이 미치는 개개인

의 삶에서 마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낮은 효율과, 변별력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질을 검증하려는 측에서는 좀더 평가방법도 발전시킬 것이다. 이제것도 환경이 좋고, 이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어차피 비효율적이던 대중교육을 떠나 질 좋은 사립교육과 개인교육의 덕을 보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교육수급과 흡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고평가를 받는 방법도 찾아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대중교육의 질 하락과, 보조기회의 박탈, 학습동기 저하, 평가 대처능력 저하 등으로,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적정수준의 대중교육의 덕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대중교육이 이렇게 1년 이상, 버벅대고 있는 사이에, 전세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대면수업 시스템의 장단점과 비대면수업 시스템의 가능성을 맛보고 몸소 체험해 버렸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시스템은 보완되었지만, 바꾸기 어려운 대중의 생각이 굳어지고, 새로운 버릇들이 습득되고 있다. 평균기대치도 변하고, 삶에 대한 자세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을 것이다. 굴러가던 대중교육시스템은,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시대 변화와 함께 진화, 발전, 변화해 나갔었겠지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큰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중수용기관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길지, 매우 궁급하다. 대중교육자체에 대한 변혁의 필요성은 물론, 심지어 대중교육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솟아날 것이다. 교육 시스템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천천히 변하는 보수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교육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실상 인류의 많은 시스템에 변화가 예고되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 시대의 교육시스템의 변혁은 그야말로, 전지구적이고 초스피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아니라도, 때가 익으면 말이다. “그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 “그 때”를, 옳은 방향으로, 최적으로 시기에, 리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 여행기 /

남가주 Winery 동호회가 함께 한 봄나들이

- TEMECULA의 EMERALD CREEK WINERY -



김문희 (김병연 공대 68 부인)

우리의 삶 속에서 따뜻한 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봄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리라. COVID 19으로 움추렸던 마음에 봄나들이 소식이 들려왔다.

4월 6일 오전 9시, 약속된 시간에 대기하고 있던 대형버스에 낯익은 선후배 동문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 버스 내부는 여느 버스와는 달리 각 의자 앞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버스도 인식했는지 여유롭게 배치되어 24명의 여행길에 편안함을 주었다.

목적지를 벗어나 내뿜 상큼한 4월의 바람 속을 버스는 달려 나갔다. 김기형 동문의 일정보 안내와 선후배 소개가 끝나고 다양하게 준비해 온 음악으로 분위기를 잡아주었다. 새벽부터 만들었다는 찰주먹밥을 가져온 라철삼(문라대)/진숙 부부의 아침 간식은 온화한 성격만큼 훈훈한 정을 느끼게 했다. 차창으로 보이는 산야는 이미 봄빛으로 채색되고 있었다. 김문희(김병연 동문 부인)씨가 마이크를 잡고 아재개그로 버스를 뒤편들기 시작했다. 버스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바람에 차창 밖만 바라보던 일행은 환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철도산업에서 포도주 생산으로 자리잡은 환상의 도시 Temecula

우리가 가는 목적이인 Temecula지역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LA에서 남쪽으로 약 80마일 지점에 있고, San Diego County 북쪽에 자리한 Temecula는 완만한 구릉지대로 40개가 넘는 Winery와 Wine Tasting Room이 있는 환상적인 면모를 자랑한다. 먼 발치에 산타아나 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높지 않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유서 깊은 마을 광장에서는 농장에서 직접 수확해서 제조하기도 한다는 것. 수제 맥주 양조장은 Temecula의 19세기 뿌리를 보여주는 나무 산책로 사이에 특박한 건물로 우뚝 서있고, EATMarket Place에서는 산지 직송 식재료로 만든 메뉴를 선보인다고 선전이 대단하다. Old Town을 걸어보면 1860년 서부 개척 시대의 점포들이 목축과 철도를 주 산업으로 하던 그 역사를 느끼게 한다. Temecula는 한 때 Chardonnay 포도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곳곳의 양조장에서 Cabernet Sauvignon 등 다양한 포도와 와인을 만들어 내고 있다.

■황혼에 몰타는 Emerald Creek Winery 점심때가 되자 버스는 Palm Tree가 늘씬하게 서 있는 Lake Elsinore의 단아한 공원에 도착하였다. 축축하게 물기를 머금은 잔디밭에서는 햇빛에 녹아든 아지랑이가 한기증을 일으킬 만큼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동안 침묵했던 대지가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듯이, 우리는 준비해 간 도시락을 먹으며 사진을

찍고 옛 추억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총무를 맡은 백옥자(음대) 동문의 알뜰하고 섬세한 마무리는 참석한 동문들을 편안하게 했고 영상까지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연두색 옴을 피운 나무들을 뒤로 하고 버스는 Pala Hotel에 Check-in을 위해 우리를 내려 놓았다. 가방만 호텔 방에 두고 Dinner가 준비된 Emerald Creek Winery에 들어섰다. 연붉은 황혼이 하늘을 물들이고, 그 황혼 빛을 받은 구름들은 가지각색의 빛깔로 수를 놓



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건물, Emerald Creek Winery에 들어서자 Jason Weber가 연주하는 색소폰 소리가 산타아나 산언덕으로 잔잔히 퍼져 나갔다. 마음이 황폐했던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었다. 점점 붉은 기운이 짙어져 빨개진 태양이 산타아나 산마루에 걸려 있을 때,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가 색소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재빨리 마이크를 든 한효동(공대) 동문의 기막힌 립싱크는 좌중을 배꼽 잡게 했다. 언제나 후덕한 마음으로 남편의 열창을 바라보는 유선씨는 미소로 응답하고 있었고, 감상찬(상대)/하란 부부는 미끄럽게 스태프를 밟아 나갔다. Marketing Manager Kathleen이 뛰어 나와 환영하며 Dinner Menu가 소개되었다. Lemon Chicken Piccata, Grilled Flat Iron Steak, Miso Salmon, Linguini, Pesto Penne Pasta 등 정성이 느껴지는 맞춤형 식사가 Emerald Creek Winery를 더욱 인상 깊게 만들었다.

기분 좋은 바람이 오크호마에서 온 이상강(의대)/경숙 부부를 스치고 가는데, 노을에 비치는 은빛 머리카락이 그리움을 안은 여인의 모습으로 휘날리고 있었다. 이경숙(가

정대) 동문은 3년 전에 서울대의 모임에서 만난 나와는 생일까지 같은 달 동갑내기로 만나자마자 한 순간에 맑은 인연으로 가슴을 열었다. 항상 해맑은 웃음을 선사하는 민일기(약대)/월신 부부는 주위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이 있어 걸보다는 속이 아픈다운 부인을 둔 방석훈(농대)/상현 부부가 있어 든든하기도 하다.

연붉은 황혼이 하늘을 물들이고, 그 황혼 빛을 받은 구름들은 가지각색의 빛깔로 수를 놓



에 담기도 한다. LA에서 70마일 떨어진 오레 살다보니 이전 싸울 일도 없어 친구처럼 얘기한다며 한 시간 넘게 운전해 항상 늦지 않게 만근하는 성실파이기도 하다. 오하이오에서 40년 살다가 삶의 터전을 LA에 옮긴 후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하는 부부의사 신영찬(의대)/정혜 부부는 재미로 유머가 아재개그에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터트리고, LA 정착의 신고식으로 Pala Mesa Resort Golf Club에서 훌륭한 점심을 일행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그렇게 볼타던 해가 노을 속으로 사라지기 전, Manager Kethleen이 사진은 '내 담당'이라며 여러 사람의 Cell Phone을 받아 셔터를 눌러 대기 시작했다. 해는 산타아나 산자락으로 숨고 우리는 각자 속으로 돌아왔다. "수제 맥주를 함께 하실 동문은 725호실로 오시길" Pechanga Casino에 들러 수입을 뒀다는 동문까지 수제 맥주파티에 참석한 동문은 12명이었다.

■상큼한 사과향 가득한 시골마을 Julian 다음날 아침 9시에 출발한 버스는 다음 행선지인 Julian City를 향하고 있었다. San Diego County 동쪽에 자리잡은 사과마을 Julian은 원래 금광 산업으로 시작한 마을이

었다. 그 후 사과마을로 유명하게 되어 10월 중순이면 주렁주렁 달린 사과를 수확하는 Apple Picking Festival로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한다. 남북전쟁 후 Georgia의 남군으로 참전했던 재향 군인들이 이주해 온 후인 1869년에 금광이 발견되어 Gold Rush가 시작되었다. 한동안 금이 계속 나와 호황을 누리다가 더 이상의 금광이 발견되지 않자 Julian시는 사과 재배에 적합한 지역으로 홍보하며 사과와 연관된 관광지 개발에 노력을 해왔다. 1949년부터 매년 10월이면 "Ju-

lian Apple Days Festival"을 열어 작고 단단한 사과 요리를 즉석에서 선보이기도 한다. 상큼한 사과향 가득한 시골 마을 Julian은 아를담고 조용해 사색의 여행지로 삼을 만한 곳이기도 하다. 버스에서 내리니 사과파이 굽는 냄새가 마을에 진동하고 있었다. 'MOM'S PIES HOUSE' 간판을 붙인 피자집에서 덩치 큰 인디언의 후예인듯한 여성이 길게 땀을 머리를 허리까지 내려뜨리고 Serve를 하고 있었다. 좁은 골목마다 피자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고, 늘어진 사과나무의 가지 끝에 아롱아롱 물기 머금은 가지 끝이 조금씩 연초록의 색깔을 품어내어 작은 꽃망울을 매달고 있었다. 어느 틈엔지 김병연 동문이 사 온 Apple Pie를 나눠 먹으며 빨간색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못 다한 얘기들을 풀어내었다. 진정 살맛나는 순간들로 이어져 않았던 자리를 서로 바꿔 앉으면서 나눔의 기쁨으로 이어졌다.

LA로 돌아오는 길, 긴 Traffic의 행렬을 기다리면서 어둠이 찾아오는 저녁 6시 30분에 LA에 도착하였다. LA 시내 식당에서 이상강 동문의 푸짐한 식사를 대접 받으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시오.



김자성 (의대 79)

우리 6형제가 자랐던 강원도 동해시 (당시 연 북평읍)에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던 교회가 인연의 시작이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원래 불교 집안이나 이화 고녀를 거치시며 기독교에 인연이 닿은 어머니가 나가게 되시고 그 뒤,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묘한 인연으로 초 중고에 걸쳐 일반학교와 절반 절반 거쳐 봤다. '삼육'이라는 교육 모토를 가진 학교인데, 지적체로 '전인교육'을 목표 삼았다. 어린 나이에도 그 이상이 마음에 들었다.

체육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바다가 가까운 시골에서 자라 바다수영을 배웠고, 축구, 자전거 타기 등을 이미 즐겼으니 체육의 중요성에 자연스레 공감이 되었다.

대학 입학 무렵부터는 테니스에 입문했다. 서울대 의대 선배인 만형님은 꽤 폼나게 테니스를 치셨는데, 그의 본을 받아 매일 꾸준한 테니스 백에 책들도 담고 테니스 도구를 챙겨 학교에 갔고, 수업 끝나면 운동삼아 혼자 벽치기도 하며 서서히 테니스에 입문, 몇 십년간 해오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되었다. 테니스를 배우면서는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 '수련'이라는 차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나간 시간에 마음 빼앗김 없이 매번 새롭게 '지금, 현재의 삶에 충분히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 뒤 중년기 위기를 겪으며, 뭔가 작은 '성취'의 충동에 몰려, 한동안 철인 경기에도 몰두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풀 아이언 맨을 끝낸 것은 일종의 버킷 리스트 채우기였다.

남가주로 이사 온 과거 일 이번 사이에는, 매주말 남가주 서울대 동문회 취미 활동 그룹인 철벽지 그룹에서 산악 자전거를 하는 것 그리고 평일 진료 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리피스 파크에 가 한 시간 내로 가벼운 조깅으로 산을 오르내리는 것, 아니면 콘도에 있는 따뜻한 풀에서 한 이십분 여하는 수영이 내 '체육' 수련의 방식이 되었다. 혼자 오르는 산길에서나, 혼자 물 속에서 수영할 때는 매 스트로크마다 호흡에 집중, 체육에 일종의 명상수행을 결합할 수 있어서 좋다.

감성, 영성 등으로 대변될 '덕육'이라는 차원도 교회학교에서 배운 중요한 화두였다. 중학교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꾸준히 스스로 성경을 읽었는데, 아마도 '의심하는 마음이 오히려 열심히 파고드는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지성이 싹트면서 점차 내가 자란 근본주의적 종교의 세계관과 괴리감을 느끼면서도, 궁극적 물음을 열어 두고 나름대로 교회활동을 계속했다.

의예과에 들어가 기독교생회에 가입하면서 주류의 기독교 출신 동문들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거의 매주 하던 '세미나'는 그런 지

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즐기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두 번의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끝낸 뒤에도, 어디에 살더라도 지인이 좀 생기면, 바로 작은 북클럽을 제안했었고, 유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한달에 한 번 정도, 주말 저녁에 친구들 집을 순차로 돌아가며 만나 와인과 음식을 나누며 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은 이민자에게 울 수 있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었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이 되었다. 2년 전 켈

“

큰 스승들의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화두같은 힘이 있었다.

내게는 프로이트, 에릭 프롬, 칼 융, 폴 틸리히 같은 여러 스승들의

이름을 화두처럼 붙들며 거처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과거 십여 년은 '켄 윌버'가 화두같은 스승이다.

그의 책 제목들도 모두 화두 같은 힘이 있다.

'의식의 스펙트럼', '무경계', '통합이론' '통합 생활 수련' 등등

”

적, 영적 탐구 수련의 주요한 연습장이 되었다. 당시 팽배하던 '의식화' 교육의 일환으로 대학가에는 책 읽는 열풍이 있었고, 우리 그룹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연관 주제들 외에도 여러 중요한 현대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 시간을 통해 배움과 토론의 즐거움, 기쁨은 토론 후 나누는 뒷풀이 시간의 즐거움도 배웠다.

그 당시 마침 에릭 프롬의 저술이 한국에서 인기였는데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등 그의 저술에 매료 되어서 따로 몇몇의 예과 친구들끼리 모여 에릭 프롬 독서모임을 만들어 같이 책을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 같이 공부한 두 동기도 정신과를 전공하게 되었다. 공부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다. 그 이후로 이런 북클럽 모임은

리포니아로 옮겨온 후에, 바로 인연이 닿아 참가하게 된 명상 모임에서도, 북 토론을 첨가할 것을 제안해, 퇴 낙한 스님의 '살아계신 붓다, 살아 계신 예수' 책 한권을 끝내었다. 그 즈음 판데믹으로 대면 모임이 중단되었는데, 대안으로 떠오른 줌으로 하는 명상 겸, 북 클럽은 지금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있고, '놓아 버림' (Letting Go)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이런 모임은 자기 공부도 계속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도 주는 보람있는 삶의 한 양식이라고 느낀다.

이런 지육, 및 덕육에 속할 금언들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또 토마스 무어의 '자신만의 종교' (Religion of one's own) 라는 책 제목을 꼽겠다. 책 내용은, 자기와 인연이 닿은 성장기의 종교에서, 결국은 자기

에게 맞는 종교/영적인 수련의 방식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마치 예술가가 처음엔 기본을 배우며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기 스타일을 개발해 나가듯 종교/영적인 발전도 그런 개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칼 융이 말하는 'Individuation'이란 말과 통하는 개념일 것이다.

큰 스승들의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화두 같은 힘이 있었다. 내게는 프로이트, 에릭 프롬, 칼 융, 폴 틸리히 같은 여러 스승들의 이름을 화두처럼 붙들며 거처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과거 십여 년은 '켄 윌버'가 화두같은 스승이다. 그의 책 제목들도 모두 화두 같은 힘이 있다. '의식의 스펙트럼', '무경계', '통합이론' '통합 생활 수련' '통합 명상' 등등, 특히 '통합'이라는 말. 그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래의 종교' 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은 심리학과 종교를 모두 포괄하는 큰 공부거리이다. 거기에는 '심층종교' 뿐 아니라 현대의 발달 심리학, 여러 철학이론 등, 해 아래 있는 모든 지식이 통합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놀랍도록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거기엔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아니라, '지성을 포괄하며 뛰어 넘는 영성'을 말하는 가장 성숙하고 깊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통합된 철사진이 들어 있다. 놀라운 것은 임상적 경험 이 없는 분이 이토록 여러 정신 병리를 체계 있게 깊이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렇고 보니, 내가 초창기에 인상 받은 '전인 교육의 모토가 그의 '통합 생활수련'의 요소에 고스란히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보며, '머연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느낌이다.

한편, 대학 시절 읽은 토인비의 '역사가가 본 종교관'은 내게 꽤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그는 세계의 여러 고등 종교를 비교하며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정신과 대승불교의 '보살행의 정신'을 세계종교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로 보고 있다. 개개의 개아를 넘어선 큰 나를 살라는 '그리스도의 정신' 혹은 중생의 교화를 위해 삶을 산다는 '보살의 정신'은 이렇듯 내가 삶에서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숭고한 이상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내 구체적 삶은 찌크라의 낮은 단계에서 맴돌기 쉬운 중생의 삶인지라, '그리스도/보살의 정신'을 화두로 매일매일 수련하듯 살아 가야겠다.



천양국(의대 63)

글을 쓰다 보면 가끔 나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가 나온다. 무엇을 자랑하거나 부끄러워서 피하지 않는다. 지나간 과거의 주소들이 밀거름이 되어 지금의 현주소에 서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5월 둘째 일요일인 어머니 날이다. 1900년 초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평범한 여성의 아이디어에서 유래된 어머니 날에 먼저 나의 어머니를 생각한 다음 어느 환자 이야기를 해본다.

내 어머니는 충남 청양에서 교육자 가정의 큰딸로 태어났다. 혼기가 다가오자 공주 사범 1회 졸업생인 외 할아버지께서 당시 서울 부청(현 시청)에 다니던 아버님을 사윗감으로 점을 찍으셨다. 문제는 충청도 양반 가문의 규수가 전라도 천씨 집머느리로 들어가는 것을 외가 어른들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집안 어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를 약산으로 시집 보내셨다. 어머니와 아버님은 10년 뒤어나 외가 어른들께 인사드릴 수 있었다. 내 어머니는 육 남매를 키우고 교육시키시다 49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꼬마 때 내 손목 잡으시고 유치원에 데려가시던 어머니, 초등학생 때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되라하신 어머니, 중학생 때 김장 담그시다 말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내 입에 깨가 절절 떨어지는 배추 겉저리를 넣어 주시던 어머니, 고등학교 다닐 때 사내는 모름지기 세 뿌리(입뿌리, 발뿌리, X뿌리)를 조심하라시던 어머니, 대학 졸업반일 때 병든 몸을 이끄시고 대청 마루 앞까지 나오셔서 마지막 학기말 시험 잘 보라며 등을 두드려 주시던 어머니, 두 아들 졸업식 만은 꼭 보시고 싶다고 그 후엔 언제라도 데려가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어머니였다. 매년 어머니 날이 오면 나는 마음 속 깊이 간직한 그런 어머니의 저고리 삶에 하얀 카네이션 한송이 꽂아 드리고 있다

작했다. 나이 탓이려니 했으나 어머니가 몇 번의 큰 실수를 저지르자 회사 측은 거의 강제로 조기 은퇴시켰다. 일생동안 자식 키우고 일 밖에 몰랐던 어머니는 취미 생활도, 가까운 친구들도 별로 없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우울증세가 안 나타날리가 없었고 인지기능도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노인들의 우울증세는 치매 발생의 한 위험 요소다. 성격도 옛날의 어머니가 아니게 거칠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 뜻 맞투기가 마냥 힘들었다. 주위 사람은 물론 이제는 가족들까지도 의심하며 가끔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몇 시간씩 방황하게 되자 결국 가족들이 어머니를 보살피지 못하여 양로원에 모

환자 이야기다. 환갑을 넘긴 여자 환자가 책상 건너 편에

/ 삶과생각 /

어머니 날에

침울하게 앉아 있다. 그 분은 어머니 날만 돌아오면 몸씨 괴롭고 긴장한다. 환자의 어머니는 지난 몇 해 동안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전연 알아보지 못한다. 자신의 딸이 찾아와도 빈 조개 껍질처럼 아무런 감정 표시도 없다가 돌연 내 남편 뺏어간 화냥년은 저리가라며 삿대질을 해댄다.

젊었을 때는 큰 회사의 비서로서 기억력이 뛰어났던 환자의 어머니는 60세로 들어서자 기억, 집중, 주의력이 떨어지기 시

켰던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병, 특히 인간성의 황폐와 존엄성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치매증상을 일으키는 물질과 질병들은 수십 가지에 이른다. 중추신경 질환인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전염성 질환인 에이즈, 매독, 뇌염, 기타 만성약물중독, 알콜중독, 비타민 B12 결핍, 당뇨병, 고혈압, 외상성 두부손상 등 등이다. 어느 정도 원인을 알 때는 일찍 손쓰면 병의 진행을 완화시켜 줄

“

꼬마 때 내 손목 잡으시고 유치원에 데려가시던 분,

초등학생 때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되라 하신 분,

중학생 때 김장 담그시다 말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내 입에

깨가 절절 떨어지는 배추 겉저리를 넣어 주시던,

고등학교 다닐 때 사내는 모름지기 세 뿌리

(입뿌리, 발뿌리, X뿌리)를 조심하라시던 분...

”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원인 모르게 대비 신경조직의 퇴행 때문에 뇌 세포들이 파괴되어 일어나는 알츠하이머치매는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장 흔한 치매로 대부분 60세 이후에 나타난다. 가끔은 50대도 일어 날 수 있고 나이 더 먹을 수록 발병이 늘어나 85세 넘으면 거의 30-t 40%까지 이른다. 거의 모든 치매환자들은 시정의 기복이 심해 뜻 맞투기가 마냥 힘들었다. 주위 사람은 물론 이제는 가족들까지도 의심하며 가끔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몇 시간씩 방황하게 되자 결국 가족들이 어머니를 보살피지 못하여 양로원에 모

예방은 첫째가 운동이다. 이틀에 한번씩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게 좋다. 그 외에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취미생활을 계속하고 향 소화물질(오메가 3, 비타민 E, C, Blueberry 등)을 섭취하는게 유익하다.

무거운 침묵 끝에 환자가 입을 열었다. "Doctor C, 어머니 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죠?" 나는 환자에게 거침 없이 답했다. "그래도 찾아가 뵙고 오십시오. 여기 진정제 처방이 있으니 가기 전에 한 알 먹고요." 알아보지 못해도, 괴롭혀도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환자는 나보다 행운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십시오.

/ 회고록 /

“늘 푸른하늘을 바라보며”를 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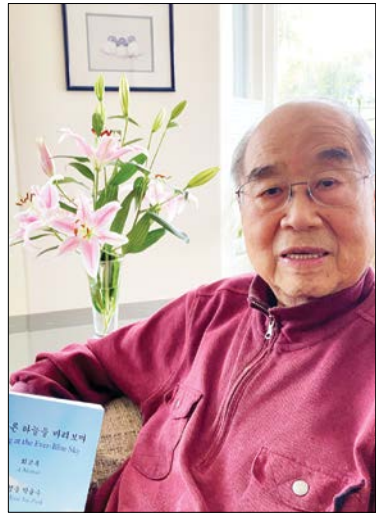
박윤수 (문리 48)



우리가 2014년 6월17일에 정든 워싱턴 DC 를 떠나 오기 전부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후손을 위해서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사건들을 정리해서 남겨두면 그들의 생애 발전에 큰 교훈의 재료가 될 것이니 꼭 쓰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자서전을 쓴다는 것이 꼭 자기자랑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썩스러운 생각이 먼저 앞섰다. 그러던 중 집사람의 건강문제로 동쪽의 친구와 친지들을 떠나 Seal Beach의 은퇴마을에 이사와서 지내는 동안 내가 죽

기전에 그래도 무엇을 남기고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차츰 들기 시작했고 더구나 요즘같이 세종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되고 방 안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많아져 자서전에 대한 충동이 북돋았다. 더욱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치명적이고 인류문화의 종말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는 이 환경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초조해진다. 내가 마음먹고 구상한 소위 자서전도 끝내지 못하고 소천될 감도 든다. 지금도 TV에서는 코로나 바이어러스 환자가 증폭하고 있고 환자를 수용할 긴급 병실이 모자란다는 방송을 하고있다. 마음이 괜히 초조해진다. 그래서 종전의 자서전 형식을 떠나 내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골라 편집하는 형식을 취했다. 내가 봉사해 온 분야에서 기록된 글들 인사말들을 수필해보는 형식으로 구성해보았다. 내가 살아온 과정을 더듬어 보고 내가 한국을 떠나 68년을 외국에서 살면서 내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했던 생활을 회고해보았다. “한미 장재단” “이민 100주년기념 사업” “과학.기술 협력사업” “교회생활” “한국에서 지내던 추억” “은퇴마을 생활” “우리 가정” 이

러한 제목으로 구성해보았다. 이제 91세의 해를 맞고 또 동시에 2020년 11월 26일 결혼 6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생활을 본받고 살아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60년 동안 나를 지탱하며 내가하는 모든 활동을 불평없이 도와준 내 아내의 헌신적인 삶을 새삼스럽게 살펴본다. 그는 두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 어머니 슬하에 자라 용감하게 어머니옆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와서 나와 짝이 되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현모 양처”의 자기 생활 모토를 지켜왔고 열심히 나와 같이 살아왔다. 우리에게 태어난 셋 딸들도 무난히 자라 자기분야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버지가 하는 봉사사업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었다. 우리 자랑스러운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거액의 장학금을 설립해 주었고 내 환갑, 고희, 90 생일, 결혼 60주년 기념 축하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었다. 이번 감사절은 우리생 중 처음으로 가족이 한자라리에 모이지 못하였다. 우리 가운데 딸이 혼자서 뉴욕에서 우리도 모르게 날아와 호텔에서 묵으면서 코로나 Test를 두번씩이나 하면서 우리와 60주년기념 축하와 Thanksgiving을 같



이 지냈다. 이제 생의 마지막 Curtain을 내리면서 나를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길러주시고 그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책을 내놓는다. 삶은 항상 “희망과 기쁨을” 상징이다. 나는 늘 고달픈 삶 속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으며 살아왔다. 삶은 창조이다. 창조는 삶의 선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산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삶은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자기 생명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생명에 대한 사랑과 같은 존엄한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다. 우리는 삶속에서 항상 기쁨과 희망을 찾고 살아야 할것이다. “늘 푸른하늘을 바라보며” “꿈” 을 추구하며 이 생을 끝내도록 하자.

<초대 미주동창회장 역임>

/ 발언대 /

거북선 행렬, 워싱턴 거리를 행진한다



이내원 (사대 58)

지난 달 4월 28일은 우리겨레의 완성형 인물로 자기희생적 모범으로 일생을 마감하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구해 내실 엄중한 숙명을 띄고 우리 땅에 태어난지 476주년이 되는 뜻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념 기고를 올리지 못한 허물이 부끄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순신 교육을 말하면서 어찌 그날을 잊기야 했겠습니까. 실은 4월초 워싱턴 한인 사회에서는 이순신 미주교육의 역사가 제법 연륜을 더해가며 특히 목재 거북선 모형제작 경험과 기술도 수준에 이르렀으니 금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는 우리 겨레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인정 평가하는 거북선 행진을 하자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

고 그 가능성을 검토 하던중 코로나로 인해 주관 NPS가 계획을 취소 하였습니다. 이미 상식이 되듯있어 2016년 4월 6일자 미국 해군연구소기관지(USNI-News)는 해양 전문가 약 2만 여명의 의견을 총합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함 7척을 선정 발표한 바 있는데 이때 놀라게도 이순신 거북선이 2등으로 뽑히 바 있습니다. 이 7척을 배출한 국가를 보면 미국의 범선전함 USS Constitution, 한국전에도 참전했던 전함 USS Iowa, 항공모함 USS Enterprise, 원자력 잠수함 USS Nautilus등 4척, 영국의 HMS Dreadnought, 독일의 SMS Emden, 그리고 한국의 거북선 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 많은 해양 대국 중에서 명품 전함을 배출한 나라는 단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4개국 뿐이며, 그중 1797년에 건조된 USS Constitution 과 1592년에 건조된 한국 거북선은 같이 나누로 만들어진 목선으로 건조 연도로 보면 거북선이 무려 205년이나 앞서 만들어 졌지만 거북선을 2위로 물리고 USS Constitution 을 수위에 올린 미국의 판정은 American First의 애교라고 웃어 넘길 수 밖에요! 우리 이상으로 스페인, 이태리, 네델란드, 일본 같은 해양대국이 무색하도록 한국의 거북선을 대신 드높여 준 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또 지난 달에는 뉴욕의 The Epoch Times 가 <A Hero of the Country That Betrayed Him Twice> 라는 이순신 특집을 실어 공의 험난 했던 일생을 재조명 한바도 있었

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회상에 부응하여 이순신 교육본부는 뜻있는 동문 여러분의 성원을 받들어 21 - 22 연도에 예년 같이 세계 10여개국의 한국학교와 이순신 글쓰기를 하는 동시에 22년도 특별기획으로 워싱턴 국립 공원관리국(NPS)이 주관하는 독립기념일 Parade에 Van Truck 크기의 거북선 행진을 참여시켜 이순신거북선의 세계화에 동문 여러분과 뜻을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후원 방법:
Payable to : Yisunsin America Institute
mail to: Yisunsin America Institute
P.O. Box 9584 / McLean, VA 22102



류정순 (가정 69)

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성적 욕망

/ 문화산책 /

쇼생크 탈출 중 감옥에 갇자기 노래가 흘러 나오는 장면의 음악이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2중창 '저녁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이다.

이 노래에 감동받은 주인공은 '뭘 말인지는 못알아들어도, 아름다운 새가 날아와 감옥 벽을 허물어 잠시나마 자유의 소리를 맛보게 해준 곡'이라고 말한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천상의 소리와 같은 완벽한 화음과 빛나는 오케스트레이션의 음악으로 가득찬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1786년에 모짜르트가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죄지는 어머니로 구성된 보마르세의 희극 피가로 3부작 중 둘째를 오페라화 시킨 것이다.

첫째는 세빌리아의 이발사인데 30년 후에 로시니가 작곡했고, 셋째인 죄 많은 어머니는 몇 작곡가들이 오페라로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1991년 코릴리아노가 원작을 대폭 수정하여 유령들이 출연하는 판타지 오페라로 만든 베르사이유의 유령을 발표하여 대호평을 받았다. 20세기에 비로소 보마르세의 3부작이 모두 오페라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주 알마비바 백작은 로지나에게 반했지만, 로지나의 후견인 늙은 바르톨로가 그녀를 탐하여 감시하는 바람에 마음을 전할 길이 없는데, 계략의 명수 이발사 피가로는 온갖 기지를 발휘해서 백작과 로지나의 결혼을 성사시킨다. 여기까지가 피가로의 결혼의 전편 세비야의 이발사의 줄거리이다.

중세 유럽에 영지의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첫날밤에 먼저 영주와 동침하는 초야권(初夜權)이란 뜻된 풍습이 있었다. 이 오페라는 전편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며 결혼한 영주인 백작이 세월이 지나자 호색한 바

람동으로 변해서, 혼인을 성사시킨 공로로 자기집 하인이 된 피가로와 하녀 수잔자의 결혼식 날에 오래 전에 없어진 초야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백작의 초야권 행사를 막으려고 백작 부인, 피가로 및 수잔나가 연대하여 온갖 희극적인 계략으로 백작을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드는 것이다. 겉으로는 성적 긴장감이

인인 속을 무척 썩었던 백작이 하녀인 수잔나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심대의 풋풋한 젊은 신부 수잔나에 대해서 품고있는 백작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 이라기보다는 성적욕망이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돈파스칼레, 팔스타프 등의 희극오페라(opera buffa)의 단골주제는



도는 속고 속이는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사회적 약자들의 계층적 분노가 숨어있으며, 성적 긴장은 그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계급적, 성불평등적 긴장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계급과 성불평등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쓰기로 하고 오늘은 성적 긴장을 중심으로 피가로의 결혼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오페라는 낭만적이고 송고한 사랑이 주제이지만 희대의 바람둥이로서 부

늙은이가 품고 있는 젊은 여성에 대한 허황된 성적 욕망인데, 웃기는 해프닝들을 통하여 그의 욕망을 희화화 시켜서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적 자신감을 잃어가는 사추기 남성의 속절없는 인간 힘이 들어가 있는 웃픈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페라들에서는 단지 젊은 여자를 탐하는 주책 많은 늙은이를 골려먹을 뿐 그의 내면세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백작이 부르는 아리아 '이쪽의 승리다'의 귀족적이고 귀족적인 멜로디 이면에 그의 내면적인 고뇌가 배어있다. 가사 중에 '올가미에 걸렸나?... 들통나면 치명타이지.. 헛된 꿈을 꾸어서 소유하게 될까?'라는 대목이 있다. 이 장면은 현대 한국 정치가 들이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지휘자 제임스 레바인이나 세계적인 테너 폴라시도 도밍고처럼 들통나면 치명적인 줄 뻘히 알면서도, 풋풋하고 싱싱한 젊은 여인에게 뽐내처럼 달라붙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성적 욕망을 뿌리칠 자제심을 상실한 사추기 백작의 인간적인 약점과 고뇌를 절절하게 나타내준다.

성적 욕망에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는 백작의 내면세계를 잘 나타내 준 2011년 잘즈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개달린 큐피트가 백작의 어깨에 달라 붙어서 떼어내려고 애를 쓰면 수록 더욱 더 달라붙어서 떼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욕망에 무너지는 자제심이 표현되었다. 백작뿐만 아니라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사추기 소년 케루비노는 치마입은 여자만 보면 가슴이 쿵쿵쿵 뛰는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망을 가진 사춘기 소년인데, 백작부인에게 꽃혀있다.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백작이 케루비노와 부인의 불륜 현장을 잡은 것으로 의심하는데 수잔나와 피가로의 기지로 겨우 들통나는 것을 면한다.

그러나 3편 죄많은 어머니에서 그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난 것으로 보아 백작부인 또한 젊은 남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뿌리치지 못한 여자이다. 피가로의 결혼이 역사상 최고의 오페라로 평가받는 데는 이와 같이 인간의 근원적인 성적욕망을 고전적인 기쁨있는 음악과 웃기는 희극 속에 깊이있게 녹여낸 데 있지 않을까?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5대 신응남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뉴욕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기타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용남 변호사
신용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내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o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d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jp@snu.ac.kr

SNU Alumni Association USA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u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150 (2020.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ua.org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Feb-Jan
	차기회장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유타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차재호 (농공학 84)	651-769-5343	jaehocha@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용정식 (농화학 86)	610-952-3673	jjyong@umn.edu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kros@gmail.com	
	차기회장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흥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상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박용해 (상대 83)	203-767-8187	yhptax@gmail.com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홍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필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중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FLONOMIX,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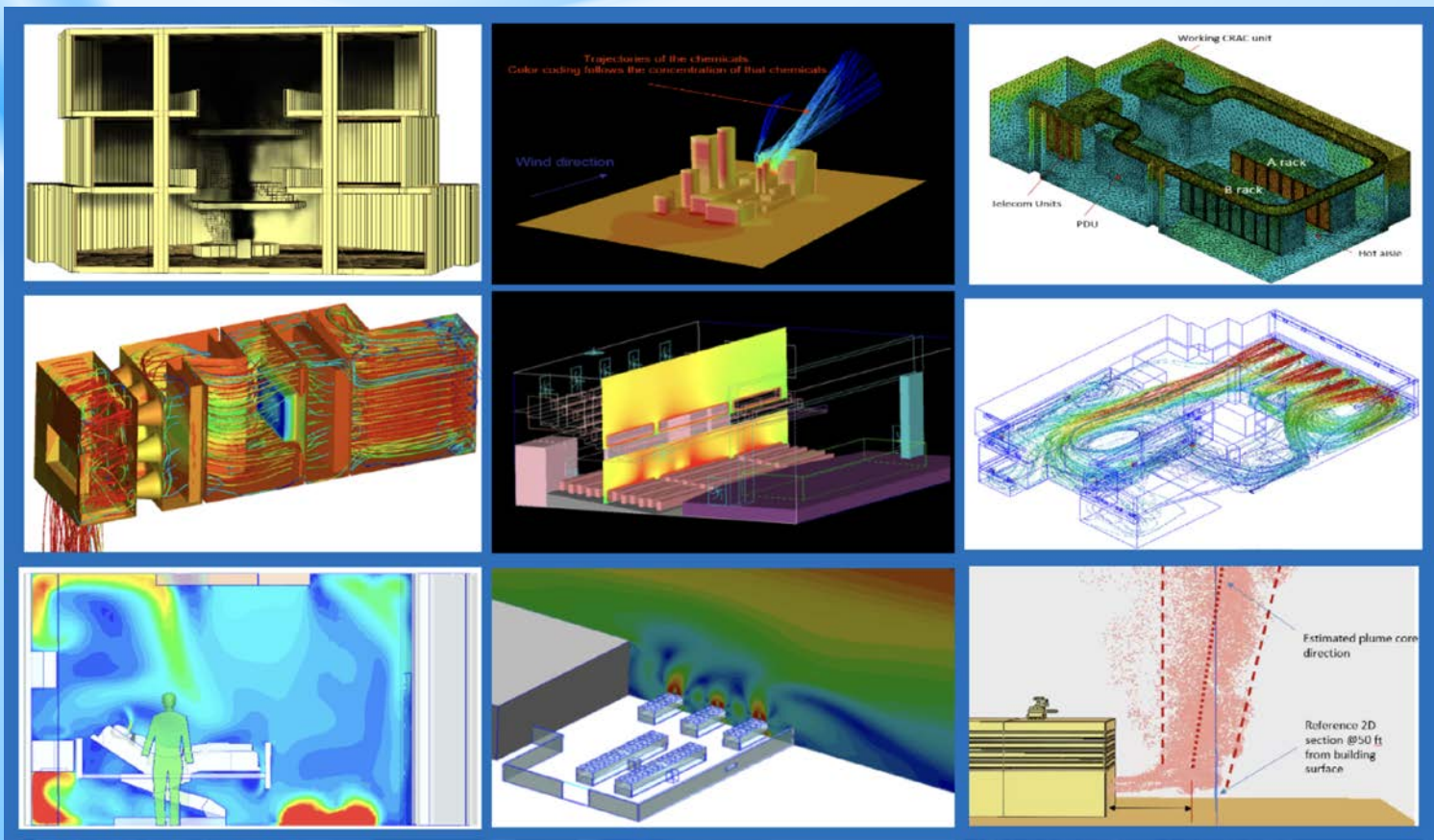
Computational Solutions for Engineering Excellence

Flonomix has been offer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alysis for HVAC/IAQ/Fire Protection industry to achieve better indoor air quality through optimization of designs and enhancement of ventilation effectiveness.

- ▲ Data centers ▲ Clean rooms ▲ Warehouse ▲ Operating rooms ▲ Public centers ▲ Firing ranges
- ▲ Underground parking structures ▲ Smoking lounges ▲ Atriums ▲ Theaters ▲ Air handling units, etc.

Heejin J. Park (박희진, 농과대학 78), Ph.D., P.E. Principal Engineer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www.flonomix.com / Portland, Oregon



Atrium fire/smoke analysis	Exhaust spreading around buildings	Data center cooling effectiveness
Air handling unit	Auditorium: displacement ventilation	Underground parking garage
Isolation room in hospital	Condensing unit area	Helicopter navigation safety